

新小説

雙玉淚

下篇

쌍옥루



81



1914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Inches 1 2 3 4 5 6 7 8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쌍 옥 누 雙玉淚 下篇

데 일 회

쌍 정옥주는 그부인과 아들정남을 다리고 목포히안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야 날
지시지당하엿더라

옥 경주는 처음에 송도나려갈새부터 믿음에 넘기지 안이하더니 이번에도 다시 목포가
는길도 더욱염려스러운 믿음이스스로 일어난다 송도로갓슬썩에도 우연이무

누 션고 슬픈일을 당하엿거늘 만일이 목포가는길에도 그와듯은비참흔 디경을당하
면 엿지하리요 하느 믿음잇서 가기를심히 쥬져하나 스나회가 임의결정하일

이요 또는정남의병을 위하야하다 흥이 지괴의스스망념된싱각으로 남편을권하
여 말류치못하엿더라 그러나경주는 목포라하느말가온디 무엇시라 히셔지못
할의미가 포함할것갓치 믿음이사상하야 지괴의믿음을 다시싱각하야보나월

1 원리다심흔디에서 이런믿음이싱김인가하고 다시믿음을 돌니엿더라
원리에목포라하느곳에는 십일년전에 리경주가 용산김소스집에서 히복하야달
을 유모를맛기여 보너여셔지금것 그곳에서 가련하어린아히로 부모의얼골도

아지못하고 잘아는곳이니 생각건디 목포라하는일홈을 경주에게는 김히숨기
엿스며 그씨는경주가 산후에병으로하여 정신을상실하였던씨이라 그러나 경
주의귀에는 그옥히남아잇스며 심중에도오히려 그씨일이 조곰남아잇는것같은
연고로경주는 심리덕작용(心理的作用)으로 이와같은생각이 지연일어나는지
라 그러나경주는 꿈에인들 지기가심일년전에 나온아들이 그곳에서장성하여
가는줄을 엿지듯할리오

경주는 정남의병에디할야 한갓부친의심녀만 일으키일가 두려워하여 한번도
공유부친씨는 기별치아니할엇더니 티홍산성을 썩나는날당하여 비로소부친에
게 일봉서찰을붓치여 정남이 그동안병으로지니다가 요사이부터 평복되여가
는일과 병후조섭하기위할야 의사의말을듯츠 목포히안으로 피접가는일을일
사해보할앗스며 서병삼과 그곳에서 우연이만난일을 김히숨기고 괴록지안이
할엇더라

정남의병제덜난후 심여일이 지니여 정옥조의일행은 기성을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나와 슈일목은후 다시형장을 슈습하여가지고 인천으로나려가서 괴선을타
고 썩나서 그잇은날 석양에목포히안에 도착할엇더라

목포라하는곳은 원리정옥조가 일족이 지지에 유학할씨에괴선으로왕되할며괴
후의온화함과 풍광의선명함을 사랑하여 지낼씨마다 그곳에하류하여 기일을머
무든곳이라
그잇은날 아침에는 여관하인 홀아들다리고 각처풍경을 완상하며 산로와 히
안으로 일행스인은 이시도록 비회하다가 오후에일으러 다시여관으로 도라온
이라

이곳은 목포항구에서 동으로오리나아가서 변화흔것은업고 슈삼호잇는 조
고마흔어촌(漁村)이라 그러나광주(光州)와 라주(羅州)로 통하디로가 잇난고
로 비록 적막흔어촌이라도 정결흔여관은 두어곳이잇스나 그중에도 놀흔곳에
히변경치를 바라보이는 여관하나잇스나 일홈을양신관(養神館)이라 일카르
며 촌중으로는 가장일으는 여관이라

정옥조의일행은 이곳에 주인을정할앗는디 날로보이고듯는것은 바다와어부의
노리썩이라 정옥조는잠시동안 요란흔세상을피하고 한적흔이곳을 선택하여잇다
라

데 이 회

「어머니이리와서 더식들좀보오 하얀식들이 퍼만이날나당기고잇서」
하며양신관 이층다락우에서 난간을붓들고서서 정신업시바다를 바라다보는
히는 정남이라 아들이부르는소리에 경주는방으로쫓츠 란간으로나려오며
「츄정말씨가만코나 그게무슨식들잇가 이이정남아 저기바위우에도 식들

이만이 있구나 아! 더것보아라 한새가 안졌네 그려

「마님이 드셔가 그려케 만이잇셔요 아이고 참만나잇구먼 그게 무슨 시사가요
사마귀는 안이지요」

정남은 희변경치를 쳐음보는고로 신기흔 모습을 이기지 못하여

「흰새마귀가 어디잇단말이요 어멈은 아지도 못하고 그리네 도련님 그럼그게
무엇이요 같가마귀인가 어멈은 새마귀밖에 모른는걸세 우리셔울셔보던 새
마귀가 어디더러흐의사가 더뎨동아리가 작고 빛도 식얌앗치」

그럼무슨 시인지 령감게엿쥬어보사

하며마로숫해서 세사름이 웃고짓거리느소리에 정협판도 방안에안졌다가 밧
그로나오며

「무엇을가지고 그려케들 닷도노라고 야단이야」

정남은부친의 바지를붓들고 한손으로희변을가르치며

「아바지 저기저물우에 흰새들이 잇지오 그것을어멈은 흰새마귀라고도하고
같가마귀라고도하요 새마귀에 흰것은업지오 응아바지」

「응저석들말이나 그석는두루미라하는시란다」

「저석가 두루미야요 아버지나는 두루미는쳐음보앗셔」

유모는엮헤섯다가

「도련님 나도앗가두루미인가보다히지」

「얼스인제듯고셔 앓가는 흰새마귀라드니」

「흐々々々」

경조는 희면을이윽히 바라보더니 다시남편을 도라보며

「여기는 더흥산성보다 경치가훌륭하데요 저! 괴보이는 섬갓치된것은 무엇
인가요」

「응그것이 완도(莞島)라하는섬이오구려」

하며 정남을나려다보며

「이전에죄인을 귀양보닐썬에 저런섬으로 보닛엿는나라 아버지 귀양이무엇
이야오」

「응귀양이라하는것이잇지 나라에죄를지은스름은 저런산속에다가 갓다두고
다시나오지 못하게하는것이 귀양이란다」

「여기서 저기가아마편말갓지오」

「여기서보이기는 그러하도 가려면 여러심리되느니라」

정옥조는 경조를도라보며 묘묘히보이는면산을 손으로가라치며

「더! 괴희미하게보이는산이 유명흔 제쥬한나산(濟州漢拏山)줄기오」

「네! 그럼여기서는 한나산이다 보이네 나는 하늘을 뚫다운데 잇는 줄로 알엇더 니.....」

정남은 물결이 모라드러오며 바위에 부딪치는 것을 흥이 나서 보고섯더니
「아버지 더물이 웨와셔 더러케바위를 작고셔려요 바람이 부러셔 그런가요 나는 저런것은 처음보았셔요 우리송도잇슬쎄는 그쪽포슈라흔들은 더러치 는안흔디」

「이물은 먼바다로홍홍물이라 바람이 부나안이부나 밤낮이러케 물결이심호 고 요란하니라 뒤홍산성셔 보든물은 산우에서 흘러서러지는물이넛가 이바 다물과는 다르지」

정남은 더욱 신기이녀이여 브라보며

「응 아버지나는 이런것은 처음보아요 그런디 더괴잇는비들은 무섭지안이호 가요 작구 물속으로풍덩드러갓다가는 나오고 쏘드러갓다는 나오고< > 하 니 이상은하지요 엇더케히셔 그러케들어갓다가는 다시나옴가요」

정협관은 쉼々우스며

「이런미련한놈보았나그게물속으로도 들어간것이안이라 물스결이 々러나니서 음헤잇는물스결이 소스오르면 비는뒤에잇셔 々 보이지안이하는싸들러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것갓지 아조물속으로 들어가는것이안이다」

정남은 부친의말을듯고 그리이녀이고 점두하는디 열헤섯던 유모는도로혀이 상히녀이외

「풍낭이저러케 요란흔디 비가엿푸러지 々안이흐니가」

「암만여기셔보기는 그러홀쫓하여도 파도가 비를뒤엿게되지는 안이흐다데」

「암만그리도 그비탄사름들은 간이다슬겟습니다 여보도련님 저것좀보오 물결에 비가넘어갈제는 비가아쵸 적구로너러박이는것갓지오 아이고무셔워라 우리도련님갓흔니는 저런비는 무셔워셔 당초에못라겟군」

정남은분연히 유모의손을탁치며

「아! 니가져샤진비를 못다요 저버덤더큰비라도 탈터인디」

「아! 참우리도련님은 원악이장스라 무셔운것이무엇이나」

데 삼 회

「아이고도련님 그러케다름박질만 하지말아요 이늬은어머니 쉼아갈슈가 잇나」

「유모는숨이 턱에닿도록 다름질하여 정남을간신히붓들고

「아!도련님 어셔그만들어갑시다 달이알흔줄도 모르고그리네 바다가에서 너무오리늘고 안이들어온다고 마님께셔 걱정하시겟소 이어멈셔지 쉼중을 들너쥬려고그리지

「걱정안이하셔요 약가어머니 아버지 다실권나가 놀라고하셨는데 공연히 어멈은그리히 그러면나혼자여기서 더놀다들어갈터이니 어멈은먼저들어가 구려」

그러면 혼조니바려두고 들어왔다고걱정들으라고 글세그만들어갔다 리일또 나와놓시다 다리압흔줄도모로지」

「나는다리압흔지 안이하요 스내도다리압흔가 녀편네나 다리가압흔지 이싸 짓것를당겼다고 다리가압하 아머어멈이 다리가압흔것이지」

「그릿코말고 나는녀편네니싸 다리가더압흔지 그리고어멈은 학신평이라는 병이잇셔사 조곰만을의당기면 무릅히압하셔 못견디요」

「학신평이무엇이야 그러면 다리가압푸……」

「압히고말고싸가절이고 압푸다오」

「어멈그리 지금작고싸다귀가 압혀셔못견디겟소」

「지금도 작고압푸지심공지는 안이하도」

「나는그런줄 몰나지 어멈앗가늑가 흥보앗다고성났소」

유모는 그말에신통이녀이여 정남의얼골을 도라다보고 우슈며

「어멈이 성을벌리가잇나 암만히도 녀편네는 약히셔 스니보다 다리가더압 푸다오」

정남은 휘々도라보더니

「그럼어멈은 저—그저산밧헤가셔 다리쉬고안져잇슈 나는어멈보이는여기 서만 더놀터이니」

「그러면 도련님저괴안덕에 가셔잇슬터이니 멀니는가지말고 요근처에서 만 노오응 그리고몰에는 드러가지말고 이모리우에서만 노라요 몰스결이모 라드러오면 큰일날터이니」

걱정말아요 요가장자리로담이면 물이여기서지는 안드러온다오 뉘물에는 드러서지안코 저괴아히들 모혀셔노는데가셔 구경하고오리다」

다 향며 말을맛지못하여 정남은다름질하여 촌아히들 모혀잇는곳으로 향하여간

그곳에는 열이삼세부터 칠팔세까지된 허변으희오륙인이 얼골은모다 희풍에 걸어 구리빳갓치된 으희들이모혀 조기와방계를 줍고잇더니 홀연정남이가 엽헤와셔 웃독셔는것을 보고여러으희들이 모다정남의 얼골을치어다보고이 상히녀이여 아리위를 흘려본다

정남은 서슴지안나하고 여러으희들 엽헤잇는 바구니속을 드라다보니 그속에 는 방계와 조코마흔심선들이 드러잇는지라 정남은그것을보고 깃거하여

「이이들이아 이것이무슨조키냐」

함며 아히들에게 정다히무르나 히변아히들은 서로알골만 바라보고 뒤답이업
거늘 정남은 적이무료하야

「이이 이것나한아쥬렴 너히들은 만히가졌스니」

역시 뒤답하는아히는 한아도업는뒤 그무리중에 열이삼세되여보이는 아히한
아이 정남의뒤으로 가만히도라가서 손에드렸던 큰방게한아를 정남의저고리
깃고뒤속으로 집어내어쥬며」

「자—가지고십거든 가지렴으나」

함며 물너셔는지라 정남은쌘짜놀너여

옥

「아이어머니—」

누

소리를지르며 급히등뒤로 손을너어 방게를집어너여 싸에더지고 우름이나으
려하는것을 어린마음으로도 슈치될가하여 억지로참으며 여러히들을 다시
바라보니 그히들은 손뼉을치며

「아—々々 지익운다 저것보아라 운다—」

함며 들네는지라 그중에도정남을 가업시아는 아히도업는것이 안이로뒤 그중
나히만은 이히의작난인고로 감히거역지못하고 한가지로정남을 놀니는지라
이와又혼조롱은 정남이가 일죽이지너여 보지못할일이라 지금것억지로참았
던우름이 분함마음에 일시에터져 소리쳐운다 이히우는소리에 홀연저편바위

틈으로부터 한이히가나오더니 이곳슬향하여오는데 나히는십일이세나 되였고
이목이 청슈할일리 미쇼년이러라

데 스 회

그이히는 압해갓가이일으러 정남의우는모양과 이히들의들네는것을 이윽히보
더니 그중나히 만은이히를 무르치며

「이이이놈아」네가이이히를 울렸지」

그이히는 모로논체하고도 라셔셔

「안이다 나는모른다 너가왜 그이를울너」

「그리도 네가여러이히들을 시겨셔 울너노은게지」

「나는그런일업다」

「정말이나 네이놈엇의보즈」

함며 그이히는 정남의등을 어르만지며

「이이우지마라 누가너를 그리뒤 저괴셨는 키커다란저년척이지」

정남은눈물을써스며 그아히의얼골을 쳐어다보며 고기를쓰덕이니

「그러치 저놈이그리스지 네뒤신내저놈을 실권셔려쥬마 누가네게마저 네게

엇어마절 몸동아리가 싸로있더나 우슈운놈도다보게네」

함며 정남을올니던아히는 압셔셔다라나미 다른여러아히들도 쫓쳐셔 사방으

로 하여 지는 자라

그 아히는 여러 아히들 다라는 모양을 보며

「아— 못된 아히들이로군 그 아히들에게 네가 맞겠지」
정남은 눈을 비비며

「안이야 그런 것이 안이라 저기 바구니 속에 도끼들이 많이 있기에 나하는 달고
코헛더니 내등어리에다가 너 엮서」

「아— 저런 못된 놈들이 어딴 대답 감안이 있거라 내가 다 그놈들을 만는 거든
실건 두다려 주겠다 이런게 네가 가지고 심혀서 그리헛니 잇가짓것은 여기 암
만이라도 잇다 잇다가 내만이 잡아 주마 그러나 너에 집은 어딴게 여기를 왔니
아서 올셔 온게로구나 너의 집은 서울이지」
응

누

옥

쌍

「그러면 언제 여기를 내려왔니 어딴서 자니」

나는 어찌게 왔는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우리 어머니하고 네시
함께 왔서 그리저기 보이는 집에 잇니 그 점에서 우리가 모두 죽고 잇단다」

「응 그러니 저 괴양신관에 와서 잇구나 그리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게시나 여기도 함씩 오구」

「너도 어머니 아버지다 잇지」

그 아히는 가장 비참한 괴식으로

「나는 어머니도 업고 아버지도 업고 단지 젖어 어머니 한 아씨가 란다」

「젖어 어머니가 무엇이나」

「나를 젖 먹여서 길너 죽자름이 젖어 어머니지」

「응 그러면 다 도라 가셨니」

「안이 도라 가신 것도 안인데 너가 언제 더커서 어른이 되어야 만나 본다」

정남은 이상하여 하는 모양으로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드렸다 나는 날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데 너는 왜

그러나 어른이 되어야만 보나」

그 아히는 다시 대답지 안코 히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저이리 오나라 내 방에 만이 잡아 주마」

두 아히는 정다히 손을 서로 잇살고 나아가며

「너의 집은 절부터 여거나 응 우리 집은 여기 잇셔도 낫키는 서울셔 낫단다 그
리나도 여괴서 쇼하고만 졸업하면 서울로 공부하려 갈터 이란다 그러나 너는
엇지혀서 여괴를 왔니 오리어 괴 잇슬터이나」

「나는 요전에 송도가셔 잇다가 병이나서 펴오리 알엇는디 의원이 이리로 펴
점을 가라고 하여 왔는디 우리 어머니도 일상 편치 못하시닛가 다 낫기 쟈지는

누

옥

쌍

여기 잇슬터이란다」
「아 그러면 너 서울을나가기전까지는 우리가이러케놀겠구나」
「암그러치」

함며 두아희가 서로손을뿔들고 희희낙락함며 나아가는디 길사가모리우에 소
라갓흔것이 쇼고만흔것이 조고마흔돌에 붓터잇는지라 정남은이것을 드려다
보며

「이의 이것이무엇이나 이게소라안이나 젓당거먹는 소라안이나 소라가무엇
이나 그것이여기말로 물망아지라는것이란다」

「응물망아지 썩소라갓구나 이게죽은것이지」

「안이 다 살았다 그것을물에다 집어넛코 등머리를 썩누르면 식꺼면물을 토
흐단다」

「그러면 정말그런가 안그러면 한번히보시」

함며 나무가지를썩거 물에집어너흐후 나무가지로 그위를누르미 과연검은돌
이나오며 물이모다 거문빰지 되는지라 정남은 그모양을보고 신기히역기여

「아 정말그러구나 그것즈미있다 내집에가셔 어머니더라 리약을히약지
물망아지가 이런것신줄을 다른사람은 다모로지 그치것서 그러케신통함
야 그것보다 더우수운것시잇지 여울쥬머니라는것이 잇단다」

「여울쥬머니 별일흥이 다잇구나 그것은 엇더케싱겼나 나는이런바다가사
처음이니사 아모것도몰은다」

「여울쥬머니라는것슨 바회우에 펍만니붓터잇셔요 을치〈저괴있다 저것
보아라물속에서 입을썩버리고잇지」

「응이것시여울쥬머니야 아이구 슈염이 기다랏케낫구나 슈염을삼질〈
하네」

「입을나무로 싹썰너보아라자丨그만 썩드러가지」

「참그것우습다 건디리잇가 그기다랏흔슈염이 모다업셔지는구나 별고기도다
잇네 더괴는방게가 썩우물〈하는구나」

데 오 회

두소년은 손목을익글고 자미스리이리약이함며 해변으로향함며 나아가는디
바다물가으로부터 두스름에어부가 한스름은그물을두루쳐매고 썩한스름은로
를어귀에 언매고오더니정남과함가지로 가논아희를보고

「이의옥남아 엇저여기나왔니 방게쥬으러나왔구나」

그아히는 횃긋치여다보더니 웃는얼굴을지으며

「시말아잠씨인데드러오시오 오늘날은고기만히잡으섯셔요」

「오丨그놈 말하는것하고썩사도함다」

「항며 홀연정남을 바라보다니 다시 그 아히얼골을 바라보기를 한참하다가 한 가지로 오는 한어부를 도라보며」

「아 여보게 원달이 저 아히얼골쯤 보게 똑 옥남이 갖지안은가」

「글세 참쌍동이 얼골 갖하이 그려 옥남이 일가 아히인게지 암만보아도 시골 아히 갖지안이흐디 얼골이 분별 갖흔 아히」

「이 옥남아 저 아히는 너의 짐일가 아히야」

「옥남이라 일커르논 아히는 그 어부두사름에 말을 이상히역이여 정남의 얼골을 들며 다보며」

「안이 요일가 짐아히는 안이야요 그런디 이이호고」

「내얼골호고 정말 갖해요」

「아 갖고 말고 한흔에릭인 얼골 갖다 네일가족속도 안이라면서 엇지알아서그다 지정답게 놀고단이니」

「그런게 아니라요 더티갑이란놈이 지금이이를 작고 놀여 주어서 울고잇길내 내가 그놈을 쫓차바리고 이의를 달내노라고 지금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야침음 친히셔요」

어부두사름은 서로 얼골을 치어다보며

「아 참남남세리 얼골도 몹시도 갖다 < 항기로 그러케지 독하게 갖흔 아히들은

처음보았네 여보게 누가 보기로 형제라고 항지안겠나」

「참이상호일도잇네 어셔가세느져가네 이이옥남아 오늘밤에 놀너오니라음」 항며 두번세번도라다보며 어부들은 손을 향하야간다

어부들의 말호고 지너간후 그 아히는 정남에 얼골을 이윽히 드러다보며

「너고나고 정말 얼골이 갖흔가 모로겟다 내얼골이 정말네 얼골 갖해스면도케다」

「나도 얼골이 너 갖히스면도케다」

큰아해는 좌우로도라보니 「이이 더디물웅덩이가잇스니 우리그리가서 얼골을 빗추어보자」

「참우리그러케항자」

항며 두아히는 손목부츠를고 바다물이 드러와서 웅덩이에 모여잇는곳에 일으러 두억기를 나라니 더이고 고기를 속이며 물거울을 향호고 드러다본다

말은물에 빗추이는 두아히의 아엽분얼골을 보건디 처음에 어부두사름이 놀나 든바와 갖치 정남의 얼골과 그 아히의 얼골이 흡사하듯하더라 그 어글々々호는

모양이며 옷둑호코날이며 아엽분입입시논 한흔에릭이엿다 할썬안이라 우실씩 에 얼골까지 천연호모양이라 다만호아히는 해변스름으로 해풍에글어고 한아

히는 서울심장으로 서울물에 씨기여 희고검은것이 다를썬이오런연덕으로 아 롬다운바탕은 해변여러아히 모인중이라도 뛰어나서 두무리속에 봉황이셔김

과갓더라

두 아희는 아즉철 모르는 마음이라 저의 두 사람의 얼굴이 과연 갓흔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지 못하되 다만 빗쑤여 보면 얼굴을 들여 서로 바라보고 빙그림이 우수며 깃거운 빛을 얼굴에 나타내나인다

「정말 우리 얼굴이 똑갓구나」

하고 우숨을 쉴 우며 큰 아희는 정남을 도라보미 정남은

「나는 물을 들여다보아도 정말 갓흔지 모로갓더라 맛은 네 얼굴이 똑 우리 어머니 얼굴하고 갓해 약가도 네 얼굴을 보고 우리 어머니 못다고 하셔」

그 아희는 흘연눈에 광채가 보이며

「정말이나」

「아이 저것보아라 눈을 그렇게 동그럭케 쓰니 어머니 얼굴하고 정말 갓다」
그 아희는 더욱 심스를 정처 못하며

「나도 너의 어머니 좀 보앗스면」

「우리 어머니 보려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무나 그러치안어도 우리 어머니는 가끔이리로 운동나오시니씩 그런척 보면요치 우리 어머니더러 네 리약이름 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잊더케 귀야하는데 너도 보시면 꼭 귀야하시겟다 그 아희는 가장 반가워하며」

「너는 그런 어머니가 다게시고 참요케다 나도 너의 어머니가 보시면 귀야하시겟니 나는 어머니가 업셔셔……. 젖어머니는 귀야하지만……. 나는 참어머니 한번만 만나 보앗스면 원이 업게더라」

예 류 회

정남은 그 아희를 치여다보며

「그럼 유모가 있구나 나도 유모가 있단다 여기서 지 함께 나왔지만 다리가 압푸다고 저 산밧해서 쉬이고 있단다」

「어디」

「저기보이지안이하니 산밧티하야케 조고아흔스름이 보이지안나 그게 우리 유모란다」

옥남이는 가장 부러워하는 모양으로

「너는 너의 어머니 외에 또 유모가 다 있구나 그러」

정남은 그 아희를 심히 위로하는 괴식으로

「내가 정말 우리 형님갓흐면 도출할 그릿다 나는 형님도 업고 아오도 업고 정말 놀사람이 업셔셔 심심해요」

하고 한탄하는 모양을 그 아희는 볼그림이 보더니

「그런치만 늠늠씩리 었더케 형제가 되니 그리고 너는 얼마 아니었다가 서울로

가면 다시는 만나 보지 못하겠지」

「나는그리도 이련디가 재미잇스잇가 아조여긔셔살썸 네마음은 암만그려해도 너의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을할실리가잇디 아모써던지 한번작별할날은 잇슬터이니 우리가갓치여긔잇슬썸썸지만 형데갓치놀고지내자 그런디 촌네 일홈이 무엇이라고할렷디」

「응내일홈은 정남이란다 그리고 우리아버지는 베슬이전에 대신썸지헛단다」

「그럼 서울지상의아들이로구나 나는시골구석에잇는 상놈인디 나고갓치노라도 관계치안케니」

「아니 별소리를다놓는구나 갓치아니노는것시 무엇이냐 그런디 네일홈은옥남이라지」

「응내일홈은 옥남이라고할단다」

「옥남이々々일홈도 엇지우습구나」

「우슈어 시골사람의일홈이되여셔 우슈운것이지 우리저쪽으로가자 저긔잇는도키들 내썸어다썸랴」

「만이썸 썸어다고」

「할며 정남은악가뵈터 썸은조키를 슈건에싸셔 손에들고」

「네가오날썸어썸 조키갓흔것은 어제는 흥나도못보앗셔 집에가셔 우리어머니에게 자랑을해야지 오날은 산호가지를다엇고 우리어머니도보시면 펍도 와홍실테다」

「긔가진것을 그리니 우리집에는 두조기리나되는 산호가지가잇는데 넉일갓다가너썸마」

정남은 눈을썸그러케뜨고

「그러케 큰거슬네가 가졌니」

「암 가지고말고 정말산호가진지는몰나도 물속에고기잡으러 드러가는사람의말을드르면 그런산호가지가 바다밋바회우에 나무처럼나셔잇디」

「응그것한번보앗스면 우리가갓흔 어린이는 그런바회를 가셔못보니」

「아희들은 가보지못한다 그산호가지는 길흔바다속에를 가야잇지 물밭게는 업는것이란다」

「그럼 어룬들은 엇더케물속에를 드러가나 죽지안나 죽기는왜죽어 여긔스름들은 그거시모도 녀편네들에 버리닛가 겨울여름할것업시 밧가벗고물속에썸여드러가셔 미역도싸고 싱복도싸고히가지고 물밭그로나오는것보면 참 재미잇단다」

그리 여편네들이 그러케 물속에를드러가 요셔도그러케하니」

「암하고 말고 더 - 산밧헤셔도 지금잡고있다 우리가셔구경할가」
정남은 깃거워 두발노경동々々할며

「나 구경좀식혀다고 나는셔올셔 이런구경은 하지못헐다 아모소리안이호고
멀니가면 우리어머니 쯤 차져다니노라고 이를쓰게」

「그럼 이다음에 우리가셔구경할자」

두아히는 손을잇살고 리약니할며 셔셔히나아가는디. 정남은 바다가운디웃듯
호게 소사나와잇는 큰 바회를보드니

「이이 그 바회는 펍도크다 그 바회우에 한번을나안져 보앗스면 토케다」

「저 바회말이야 그 바회일홈이 투구바회란다 투구갓치싱기지안나헐니 지
금은 물이드러잇스잇가 그러치 이물이짜지면 여긔셔 바회잇는디써지 거러

셔도 드러간다 물이갓짜진후 거괴드러가보면 바위스이에 별고기가다잇지」

「거기흐변 가 보아스면 언제던지 물이짜지거던 한번가셔 구경할자」

「그리두 그 바회는물이 드러올썩에는 산뎡이갓흔물별이 드러와셔 별약갓
치부티치닛썩 잘못할면 큰일난다 언제던지 일괴도흔날 한번가셔 잠간구경
할고오자」

데 칠 회

「정남이 인제야오니 나는아쥬 집을이러바린줄아라구나 무얼그렇게 히변에

셔 오리놀고잇섯니」

총々이다름질할며 드러오는 정남의뒤에는 유모가 뒤쫓차드러온다

「마님 인제옴니다 앗다 도련님이 집에올줄도 아지못호고 작난에골몰호는
것슬 간신이다리고왔습니다」

정남은 유모의얼굴을 도라다보며

「앗다 어멈은 입디지잔디밧헤셔 안져만잇다가와셔는.....」

「어멈은 다리가병이낫스니썩 그러치」

경조는 우슴을먹음으며

「오나 정남이가 쯤미붓치는것잇셔노니 넉마음이 대단이토타 아뭇조록속히
소복할여가지고 셔올집으로 올라가자 나 모양으로 일싱병치레만히셔야 무
엇세쓰겟니」

「어머니 나는여긔셔 아쥬살어스면 토케셔요 토흔동무도잇스잇가」

「이이 이촌아히들호고 너무셔겨다니지말아 못된것만 비으기쉽다」

「그리도 어머니 옥남이란아히는 여긔시골 아히들갓지아니히요」

유모는 정남이쥬건에싸셔들고 잇는거슬가라치며

「여보 도련님어머니보시게 쥬어가지고은토키덜이나 쯤늬여노쿠려 나도 쯤
복시다」

정남은 아리웃간방을 좌우로돌너보더니

「아바지는 어디로가셨나 그런티어머니 오늘은 엇더케구경을잘했는지물
나요 도기도별것이만이있고 고기도 별것이만어오 그리고니일은 우리동모
옥남이라는이가 조흔산호가지를갓다죽마고 그리셨요」

「너는 밤낮동모々々하니 동모가엇던아히나」

할며 경주는 다시유모를 향하야

「여보게 이기어면 이의와갓치놀아싸는 옥남이란아히를 쯤네도보았나」

「네저는다리가압퍼셔 도련님하고 갓치다니지못하고 산밧해가셔안졌더니
도련님은 혼조아히들름으로 가서놀다가 동모를하나 장만함모양이올시다
는저는자세히못보았셔요 지금도련님하고 을씨에먼말치로잠간보닛가 나히
는아마 열두어슬되엿나보아요 모양도암현하고 얼굴도희고 이곳히변싸아히
들갓지는 아니히요 그런티마님 도련님은 그아히얼굴이 똑도련님하고 갓다
고그이갓은형님이 한아잇스면 도케다고길에서오면셔도 노! 그말썬이오」
정남은 모친을치어다보며

「어머니 정말니얼굴하고 갓히요」

경주는 얼굴에 이상흔그림자가났타나며

「그아히얼굴이너하고갓흔줄을 엇지아니」

「그것은 어머니 비사름들이 지니가다가 나하고옥남이항구 보던이너희들은
얼굴이한반에 빅여년갓갓다고 형제냐고그리오 그리셔 우리가얼굴을 물에
다가빗추여보앗더니 정말똑갓흔갓히오」
유모는우스며

앗다도련님은 의스도도치 물에다가 빗추어얼굴볼줄은 엇지알앗스까

그런데 나는보아도 쯤세알슈업는티 그옥남의얼굴이 우리어머니얼굴하고는
똑갓히요」

경주는 그말에홀연 가슴이올니며 고이흔염여가이러나々 강인히 스식을낫타
나이지안이하고

「이세상 여조창성중애 갓흔스름이 오작만켰니 그의부모는 비스공이라티」

「아이고 마님멀니셔보앗셔도 모양이 이곳아히들갓치 상스럽지안이히오」

정남은 모친에 무릎을 혼들며

「어머니 그옥남이는 시골아히가아니리오 저의어머니아바지는엿디오여기셔
는저의젧어머니하고만 산다는티 그이가커다랗케자라셔 어른이되지안이하
면 아바지어머니를 맞나보지못했디오 어머니 엇지셔그러오 나는무슨사들
인지모로갓셔오」

경주는안광이 홀연빛나며 김히흔숨짓는다

쌍

옥

누

「어머니々々々 옥남이든었지 놀기가도흔지 몰나오 다른아희들이 모도와셔 나를놀여주어셔 나는울었지오그런디 옥남이가와셔 그아희들을쫓츠바리고 종일나고갓치노랏셔오나는옥남이가흔언이흐아잇스면 어머니도쫓게지오 옥남이도 우리어머니 한번보앗스면 쫓게다오」

쌍

「그리너의들을보구셔 지니가든 사람이 얼골이 갓다고 흥드란말이지」

옥

「응보논 사람마다 그리오」
「옥남이논 그아희 일흥이나」
「응일흥이 옥남이야오」

누

예 팔 회

석양에 넘어가느히는 발셔유달산(儒達山)봉오리넘어로 썰러지려논디 쫓각구름스이로쉬어나오는 남아지빛은 다시히면의잔잔물결을 쳐식하여노흔듯져녀히빛을안고 도라오는듯단희는 완연이그림과 다름이입더라 원근에연하여잇는 울을흔산과 봉오리는 점점물동하여연괴중에 싸인것갓흐며 물여드러와셔 언덕에부티치는 물스결소리도 이날은희한이고요호야 이즌것을별안간에 생각한다시 석석로물여와셔 바위에부티치는물결소리에 고귀를비트리고 한가이도을든 비구의심을놀녀여 활활날아가는것도 한경치라 뒤에잇는조고마흔산밋헤

쌍

는 어느틈에 전역연괴가일어나고 너머가느히는 소나무가지뺏헤갈이여 잇스니 적막하고 흥정하여촌경치는 진실노사람의 회포를도읍더라 이석에히변경치를 완상하며 서셔이거름하여 비회하는사람은 정육조의일흥이니 그부인과아들을다리고 이곳에산보힘이라 정남은 그부친을티하여 전일옥남에게들은바 물망아지와 여을주머니 리약이며 방계잡논리약을향논디 정육조는 다시자서히 설명하여 들녀준다 경조는 말일시남편의뒤를 쫓차오며조리와방계등속을주으며 나아가는디 일흥삼인은 얼마아나하여 한바회압해다다러더라 정남은 별안간에 웃둑셔며

옥

「아바지 저 바외가투구바외라하는것이야오 나는 그바외가 그중조와」
「올치그바외가 정말투구모양갓치 성기엿구나」

누

「아바지나는 저바위우에 좀올나가보앗스면 쫓게셔요 거괴올나가셔보면별구경이 다만이잇디요 이물이다짜지는씨는 저바위까지 거러셔라도 올나간다는디 전에 아바지여괴당기실제 저바위에올나가보섯겟지오」

쌍

「안이 나는 올나가셔본일업다」
「아바지 언제물이다 업셔지거던 나고한번갓치가셔 구경히요 응 아바지」
「응그리호자」

이석에 맛춤물녀드러오는물결이 빙호가입을버리고 짐어먹을듯시 달녀드는것

갓치 그바외를물스결이 뒤엎허물속에 파뭇치는지라 경즈논이모양을보고 홀연스소리를치며

「아이교 어이 정남아 아예저바회예는 올라가지말아 너도지금보았지 물덩어리가 그 바위를뒤엎는구나 만일그런썩에 사람이잇스면 함께쓸여드러가지안아흐겟의 아예 그런작란은홍지마라 영감게셔도 못하게하셔오」

「어머나는 아지도못하고 그리하시네 지금은 물이작고드어오닛가 그러하치오 이물이다물너나가면 관계치안어오」

정옥주는 정남의편을들어

「지금보기에는 한참물이미는썩이닛싸 그러케워티하여 보이지만은 물이싸지면 그썩는조금도워티할것업지오 어이정남아 네가정이 저바외위에를올나가고저할지경이면 언제던지 물싸진후에 내가다리고 올라가서 구경식혀주마」

정남은 심히기거하며

「그럼 아버지썩 구경식혀주어오」

「응 그리라」

경즈논 오히려 녀려를뚫치못하고

「아이 여보시오 영감나는 정남이가 너무도 바위위에 올라가려고만하난간

암만하도 열려가됩니다그러 만일삿닥잘못히셔 별안간에드러오는 물결에싸이여셔 드러가면 큰일나지안이흐겟습닛가 영감이 올라가지 못하게하시지논아니하사구셔」

정옥주는 미소하며

「그다지 녀려할것은업소 이히들은 너무위히셔만 길드면 아히들이 도로혀라약히져셔 못쓰는법이윈다 그도만일바름이심하고 물결이몹시 썩놓는날이면 모로갓스되 고요흐날에야 요즘이나 무슨녀려가잇슬리가닛소 그리고너가 다리고올나갈테이닛가 아무녀려업소」

경즈논다시정남을향하야

「정남아이후에 저바위위에 올라가려거든 아버지썩말습하고 아버지하고 흠씩을나가지 형여흔즈논가지마라응」

「예」

정옥주는바다를향하고 유연이셔셔 멀니히중을바라보니 놀랐다나젖다하는물결이조로움작이며 언덕에부뒤치는 물소리는짐중사람의마음을웅장케하다보기를이유히하더니

「참경치는더말할슈업소 지금니가한참본즉 과연상쾌하고 웅장하여셔 사람의미약할마음도 능히흥괴를식일듯하구려 그러치안소」

경지도한가지로 물결치는것을바라보고 잇다가

「예 그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잊지그러한지 무섭기만히요 더해보시구려 짐
치갓흔물덩어리가 더그 바위와 바위틈으로 물너드러올제는 서셔오는것
갓다 다시속으로 쑥드러가는것갓히다 물겉품이이러날씩는 그 깃흔속에
무슴것이 잠기여잇는갓갓히요 그런것이 나는공연히 무셔워요 그리고물결
이 출녕거리며 살달듯하는것을보면 뇌뭉씩지도 쇠을너드러가는갓갓히요」

데 구 회

정옥초는 허우스며

「올은말이오 나도엇전지 두려운마음이 안나는것은안이오 이러케흔참 뇌여
다보고잇스면 무슴형용업는물건이 그속에은복(隱伏)하야 잇는갓갓고 또는
두려운무슴이 즈연싱기는것은 이른바고상(高尙)흔 관념(觀念)이 일로쫓차
이러나는법이니 가량말하면 적막흔심산궁곡에 홀로드러가셔섯던자 푸르고
검은 깃흔소의에림하면 그곳에는 무슴형용기어려운 무셔운물건이 잠복(潛
伏)하야 잇는듯이 마음이되는것은 사람마다 다잇는무슴인디 그엇던흔물건
이라하는것이 사람의 무슴속에잇는지 던지자연(天地自然)에 잇는지 그는용
히이 허석하기어려우나 엇더하든시간에 산중에 홀로가셔잇던지 큰바다의
락랑로도(濁浪怒濤)를보든지하야 무슴속으로 이상흔관념이 이러날씩에는

던지자연과 즈과의 무슴이 눈에보이지안이하는일로 년결(連結)하야 노은
것갓흔 무슴나는것은 사람마다 그러흔것이라 지금부인의말이 몸이물에쇠을
여드러가는갓갓다 하는갓갓도 죽 던지에자연과 부인의 무슴이 서로연결이되
는사슴이오 그런코로 만일즈기의허물이 잇는사람이 이경우를당하면 그지
은허물을 심히두려워하는 무슴이싱기니 던지의자연이라하는것은 사람의정
신상(精神上)에 비상흔감화(感化)를주는법이오 명산(名山)이인결(人傑)을
낫는다 던지의자연(自然)은인심(人心)을 감화시키는 교회스(敎誨師)라하
는것이 다이러한이치에서 나오는것이오」

경조는 고기를숙이고 남편의말을 귀를기울여듯다가 다시 고기를돌림이업더라
부친과 모친이 투구바회압해서서 리약이항고 잇슬동안에 정남은 홀노압홀향
하야 나아간다 저편물가에논 고기잡이비가 드러와서 고기를난호는지 고기두
셔너마리를 바꾸니에어더들고 허변으로쫓츠 촌가를향하야가는 사십여세된로
파하나와 십여세된아히가있다
정남은 발셔 그아히를보더니

「오— 옥남이야」

그아히는 얼은디답하며 정남에게로 향하야오려다가 다시그로파를 도라다보
며

「어머니 저의가 앓가 내말하던 그아히오」
 「로파는 눈을웃조락으로씨스며」
 「응네얼골하고 갖다하던아히가 저아히냐 네얼골과갓다니 니마음도 엇지
 반가운지 모로갓다」

이리말할스이에 정남은 다름질을하여 발서 이곳에일을러더라 옥남이눈 반가
 이며

「너는 히가저무러가난디 혼조여기서지나와서 놀고있니」

「안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모도함씩 왔단다」

이말을듯더니 옥남의얼골에 이상흔기운이보이며

「그러면 너의어머니도 여거나오셨니 어디계시냐」

「저기안이나 저바외압해 두리저서있지」

「응정말저기 두리섯는사람이나 니가불가나는 너의아버지하고 어머니하
 고좀보앗스면 좃케들아 제일너의어머니 좀보앗스면」

옥남은 가장얼심으로 말하나다

「그럼 나고함씩가자 우리어머니한테 다려다줄러이니」

「그런치만 나는붓그러워서 엇더케가니々々그러도 우리가보즈」

하며 두손을잡고 다름질하며 그곳을향하러할지음에뒤에서서있던로파는 옥남

을부른다

「이이옥남아 감안이있거라」

옥남은 부르는소리에 몸을도로키나 정남도몸을도로켜그로파의 얼골을치어다
 보며

「이이 이이가 너의젓어머니냐」

그로파는 나죽흔말로 덩당의

「니가 이옥남이 젓어머닐세」

하며눈을씻고 정남의얼골을 자세〈들여다보더니 한숨을 길게지이며

「웃기도하다 엇지면 이럴케 얼골이웃흔가 형데가안이고야 이럴케웃출슈가
 있나」

하며 입속으로하는말을 옥남이가듯고

「자— 우리젓어머니도 보구서갓다고하느구나」

정남이도 신이나서

「할멈이보아도 우리얼골이웃지」

「웃고말고 그럴케웃출슈가있나 한판에빅여니인것웃치 아이고세상에도」
 하며조탄하기를. 마지안이하고 정신업서 두아히의얼골을 번가라보며 들여
 다보다가 손에들엇던 고기스바구니를 싸에셔러친다

「여보할멈 바구니가 써러졌」
 향며 정남파 옥남이가 그 바구니를 집으러 할썩에 그로파는 비로소 삼작싱각을
 향고 바구니를 싸여서 집는다

「어머나 웨그리오 무슨일이잇소 더이향고 저기가보아도 관계치안소」
 옥남이는 말흥기를맞치지못하야 다름질로 그편을향하여 다라난다

「차이가 더그는왜간다고 그리할가 시골구석에서 잘아나서 누구에게 변변
 이 더답도할줄모르는 위인이」

뒤에떠러졌던 정남이는 옥남을쫓추싸라간다 그로파는 두소년의가는 모양을
 망연이서서 보고있더라

예 심 회

그로파는 두소년의가는 모양을 물그림이 바라보고서서 입속의말로

「그아희더러 저서이좀말이나 물어보려고히더니 별셔가버렸구나 정말형데
 나아닌지 모로겟구며 천형제가안이고야 열골이 그것케웃홀슈가잇나 열골
 히전일이니저 나도저서이는 괴역홀슈는업셔도 그아희어머니라는 사람을
 내가한번만보앗스면 열골은잡작홀터인디 그떡드르닛가 열홀이경조라고향
 든가향였는디 그아희어머니가 정말우리옥남이 어머니가보다 정말그러향면
 작하나 도흐리만은」

철모르는 옥남이는 저의부모의 열골도모르고 이시골구석에서 자라나나아
 모리히괴홀이제상이기로 지금은아즉 철을모로닛가 아모싱각이 업겟지만
 은 초초심이나면 부모한탄을 오작하나홀나구 이런불상흔 아히도잇는디 저
 으히는저의어머니아버지틈에서 금이오 옥이오향고 귀임을받고저상가 자
 제로 남이다치어다블테이니 한비스속에서 나온형제도 팔자가각각이로구나
 저아희어머니가 정말옥남이나은어머니일디경이면 엇더케히셔 지금은 저상
 가부인이도였는지 몸이잘되었스니저 이전저식은 당초에싱각도 안이향는것
 시저 그싱각을향면 더미워셔못견디겐네 아모리쳐음부터 왕리를살코 소식
 시저 동치아니향기로 약조은향였지만은 조금이라도 인정이잇는 사람이면
 저식사랑에 살녀서라도 엇더케던지 남모르게 소식이라도전향련만은심
 여년이되도록 소식홀번이 엇단말인가... 다시말할것무엇잇나 갓나은저식
 을제손으로 죽이려고시저향던 아귀갓흔 여편네니싸 옥남이싱각은 발셔이
 저바려슬터이지... 내가 그경조라고향는이를한번만보앗스면 가슴이시원향
 도록 원망을 향여쥬련만은 어머니되는 사람은 그것케무정향여도 옥남이는
 그미정스러운 어머니를 그리도쥬야로 싱각을향나 잔잉히셔 그모양은차마
 사람의 눈으로 볼슈가업지 오날도 그이어머니가 제열골향고갓단말을 그의
 에게 들엇다고 신명이다가라쳐쥬시는지 그말드른후부터는 그리어머니를한

번만보았스면 도케다고 도부비듯하니 그런불상흔 뇌지식의 마음을 아지도 못하고……정말엇지면 사람의인정이 그러흔고……엇더턴지 뇌한번가셔 먼발치로라도 잠간보고 오겟다

「그며 옥남의유모는 두아희가 가는곳으로 뒤쫓쳐 서서허거러간다

옥남과정남은 정옥조의부부가 서서잇는곳에서 룩칠간동안이나 격흔곳에 이르러

「더것보아라 더것안이야 우리어머니가보이지」

옥남이눈멀이경즈를바라보며

「엇의보이니 고기를굽호리고 게시닛가 얼골이 엇의보이니」

「그림 더갓가히가셔 보자」

「나는 붓그러워 엇더케가나」

「관게치안타 어셔가즈」

「그며 정남이눈 옥남의손을 잇글고압호로 갓가히나아가니 정옥조는 히변경치를 바라보고섯다가 어히들 다라오느발자최에 고기를돌리며 두아희를보니 옥남이얼눈고기를숙이여 공손히 정옥조의 부스를 향하며레흔다

정옥조는 옥남의얼골을보고 뇌림에이근쳐 히변아히로는 희귀흔 소년이라하며즈기도고기를 싣덕이며 답례하고 다시옥남의 얼골을바라보더니 흘연한번

놀뇌이지안이치못할네라

보건덕 이아히는 히변가에 보통아희와다르고 청슈흔미목은 서로나라니서서 잇는 정남의얼골과 심히갓도다 신괴흔일에 놀내이기를 마지안이하던 정옥조는 혼즈말로

「참이상흔일이다 정남흔고 얼골세썩앗구나 정남이보다 저의어머니얼골과 더갓다그아히뇌집즈식인지 잘—싱겟다」

남편엮헤셔々 잇던경즈는 옥남의 얼골을유심히보더니 점점얼골이변하여파랏게질이며 그눈에두려워 혼뇌괴식이 나타난다

「너보이것참 이상흔일도 다잇구려」

「그며 정옥조는 경즈의얼골을 도라다볼씩에 심일년만에 만나보는 모즈두사람의눈은 서로바라보는안광이 사람의눈에 보이지안이하나 실노싣을이은것갓치 한참동안을 두사람이 정신업시바라본다

예 십 일 회

철모로는 정남은 서서잇는모친의 치마압헤와셔안기며

「어머니저이가 옥남이라오 약가늑이가약이히시오 어머니도 보고심다고했지 지금지괴셔 맛참맛났길에 내가다리고왔지 저괴저의 젖어머니흔고 서치 잇습디다」

경조는 대답도 하지 않고 목우인 것처럼 서서 정옥조는 옥남의 압호로 갖가이 나아가며

「네일홈이 무엇이야」

옥남이는 북그러운 마음을 억제하고 정옥조를 치여다보며

「옥남이이오」

「성은 무엇이니」

「성은 서가이오」

「서옥남이 응그러면 네집이 본리 여기더냐……………서울서 혹시 락향을 했나나」

「본리 여기이오 그리도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또 학교에 드러갈터이오」

그러면 지금은 쇼학교에 당기니 그리 학교에 당기기가 도흔야

「네 나느글뵈기가 펴도와 요 학교선생님이 우리집에 와서 개신데오」

「응나히는 지금 몇살이니 너의 부모다게시고 너의집에서는 무엇슬하니 농스를 하냐……………」

「올에 열한살이이오 나는 아버지도 업고 어머니도 업고 집은 우리젼어머니 집이이오」

정옥조는 점점이상이 역여가

「허허그러면 외로운몸이로구나 가엾은일이다」

정남은 부친의 압호로 다시 나아가

「아버지 그리도 저의젼어머니가 펴귀이한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도 업셔도 젼어머니가 귀이한테가 조금도 설지안타고 그리도 내가 우리어머니 아버지 항구 흠씨왔다고했다니 그말을듯고는 저이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나서 울어다고하오 그런디 아버지 젼디내가 아히들한테 마져서 내가 우니사 저이가 와서 그아히들을 모도 좃추주고 그석부터 나구동무가 되얏셔오」

「응그러셔」

항며 정옥조는 경조를 다라다보며

「그아히 요즘 잘살것소 열한살로는 숙성도하고 못난말도 대답이 똑똑하고 영민히보이는것이 이식골서 성장하는 아히라고는 흠슈업는걸 첫지괴상이 도와보이닛사 아히변어부의 지식은 아닌가보오 다만 그아히얼골이 부인과 정남의얼골하고 갓흔것서 이상한일이저……………」

「엇더튼지 정남이는 도흔 친구한아엇어소 모르는사람은 형데로알기쉽소……………」

경조는 더욱 / 요란흔 가슴을 진정항며

「정말 참그렸습니다」
경조는 다시 눈을 숨기며 옥남의 얼굴을 바라보니 옥남도 역시 경조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과 서로 마주쳤는지라 경조는 삼썩 놀내며 다시 싸를 향하고 고기를 속이 인다

히는 발서 황혼에 이르러 촌의 인가마다 전역연기가 쳐쳐에 몽롱하여 갓가히잇는 사람이 안이면 얼굴도 자세히 알기 어렵더라

이때에 옥남의 뒤쫓아서 서서히 거러오는 옥남의 유모를 정남은 발서 알아보고

「이의 옥남아 너의 젖어머니 온다」

「엇의 참말 어머니………」

하며 옥남은 고기를 돌리며 불썽에

「이의 옥남아 여기와서 무엇을 하고 있니 어서 가자」

하며 그로파는 정육조를 향하여 인스하고

「이것은 식골 지식이 되어서 아모것도 모르고 미거 만흔니다 어른압헤와서 잘 못한 일이나 업셔는지요」

하며 눈을 드러 가만히 경조의 얼굴을 바라다 본다 정육조는 그로파를 향하여

「여보게 이스름즈네가 아히히 어머니 되는 사람인가」

「에그렸습니다 데가나 온 지식은 안이 옅고 젖먹여 길너준 사람이 올시다 말씀

듯조잇가 영감마님씩셔는 서울서 내려 오셨답지요 엇더케 이러케 먼식골구석에를 오세숫가요 촌구석이라 잡슈실것도 변변치 못할걸이오 아이고 도련님은 잘도 싱겼습니다 어엿부기도 하지 그저 이미 거흔 옥남이 하고 날마다 정답게 노는 모양이야요」

하고 말중 면셔도 엽눈으로 경조의 얼굴을 저로 바라 본다

아모 리허모르는 정육조는 우슴을 머음고 슈염을 쓰다듬으며

「지금도 우리가 이놈의 조흔 친구가 싱겼다고 이악이를 향엿네 우리가 여기잇슬 동안에는 날마다 옥남이를 놀너 보너 주게 우리는 요놈어 양신관이라는 주막에 류하니 저네가 그 아히히 아야 잘 가라 천개나 어린 아히지만은 엇지 영민흔 지모로 겿데 그러」

그로파는 붓그리는 모양을 지으며

「천만에 말씀이 올시다 엇지 그럴 수가 잇슴닛가 그러오나 아히히 아모리셔 의천부모는 뇌바린 지식으로 알고 한번도 찾지를 안이 하지요 만은」

하며 홀연 비창하여 두눈에 눈물이 돌더니 다시 말한다

「이허은 것이 아히히 나는 무슨 짓을 향던지 잘 가라 쳐서 사람을 만들어 고함 니다 그저 식골 것이라 무엇을 아야 합지요」

「그러면 저네가 전에는 서울도 잇셔 보았나」

「예절머슬씨에 육칠년동안이나 량반의덕에서 든안도 좀해보았습니 다만은별
서이시글와서 산지도십여년이 되었습니다」

예 십 이 회

정옥조는 빙그림이우스며

「안이그리도 할법이 지도를 잘알았기에 어린아이가 그만콧속까지
항던시간에정남이하고는 피츠에조흔친구가 되겟스니 날마다 우리잇는곳으
로놀러보너여주게」

항고정즈를도라다보며

「부인도그렇게말을하구려」

정즈는간신히 목소리를닉여

「예여보마누라 그이를날마다라도 우리게로놀러보너오」

옥남의유모는 비로소정즈와말을기회를잇음으로 정즈를향하여 다시인스흔다
「이어른게서 부인되시는마님이온넷가 아이고 신식도곱기도하시고 식식시
갓호셔니 변변치못한것이야야도런님하고 정답게노는것을보니서 그것도 무
슨전성의연분이던것이야오 아모조록 마님께셔도 이어미야비업는것을 불상
이여여주시오 어린것이라도 부모를엇지싱각을하고 언스잔이하는지모로겟
지오」

항며정즈의안식을 눈여여보는 옥남의 유모의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정즈는
다만들뿐이라 로파는다시옥남을 도라보며

「너 저마님께 인스엿쥬었니 너又흔 미거흔거시라도 이렇게들귀야하시누구
나옥남이논다만 붓그러움을 먹음엇더라」

정남은 옥남의손을익살고

「이이우리는 더리가셔놀즈」

「응그리 가셔보자」

항며 두소년은 여기를 언머이고 더편으로가려흔거늘 그로파는 옥남을부르며
「이이옥남아 점점어두어가논디 어디가셔논다고 그리흔나」

「아니야요 괴져잇슬테요」

정옥조는 로파를향하여

「더아희의 부모논다도라갓다항니 아마상사름은안이든게지」

「안이올시다 부모가다죽은것시 아니라 지금어디셔든지 살아잇슬줄은 안이
다만는.....」

항며 말을맞치지안아하는지라 정옥조는 그말을이상히녁이여

「허허그러면 부모가죽은것도 안이로구 우리는듯더라항여도 관계가업스니
저서흔리야이를 좀향여유게나그려」

「네 그러케 합지요 이 아히의 저서 힘리력은 입디지 멧히 동안을 누구 한 사람에
게라도 말한일이 업습니다만은 령감마 넘니 의분은 지금 처음 뵈을 지라도 엇전
일인지 남갓지 안이 하고 한집안 량반갓치 믿음이 정답습니다 그려 그려니 무
슴말습을 못갓습니가 아모조록 저마님씩셔도 저세 드릅시오 정말 불상히셔
못견디겟시오 앓가도 말습을 엇주었습니 다만은 부득이 한사정이 잇셔서 이
모양이 되얏는디 이 할미도 저 아히의 아바지 일흠을 아지 못습니다」
「그러면 키구역바진가 길에 너여바린것을 어더다가 길넛나」
경조는 녀름몸이 셤이난다

로파는 다 소간분괴를 썩은목소리로

「키구역바지가 다 무엇이 온닛가 저의가 이 아히를 길으려고 맛타올썩에 약
도항기를 저의부모편의는 흥신을 싣키로 항었습니다 그려 저 아히 어머니되는
이는데가 일골을 보왔습니다 그것도발서 십여년이 되얏스닛가 지금은 맛나보
드리도 일골을 알아볼는지 모로갓습니다만은 어머니되는 사람의 일흠은 지금
싸지도 잇지 안이 하고 괴역항었습니다 그려 항오나 그 일흠은 말습히야 쓸디업
는 일인듯 항음닛가 일흠은 엇주어 드리지 안이 흠이 다만은……」

항며 경조의 괴식을 슬허여보니 경조는 그로파가 일흠일으지 안이 항는것을 무
한이 감스 항여 항는모양이 표면에 나타난다

그로파는 말을 계속 항여

「그리고 그 어머니로 말습항면 그 신제도 더히 보나 을 것이 업다는 말은 드
릿스나 저세 홀곡절은 당초에 아지 못항게 구요…… 엇더항던 시간에 더히
는 어머니정이라는것은 조금도 아지 못항고 귀염도 바다보지 못항었습니다
오작항야 갓나 아셔 멧철되지 안이 혼어린것을 저귀의 손으로 죽이려고 쓰지 항
얏드리요 그 썩맛참병으로히셔 실진을 항었드라나요 아모리 병중에 모로고 그
리했다 항기로 엇지면 그런짓을 항닛가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되는이를 원망
함니다」

항며 경조의 일골을 바라본다

데 십 습 회

로파는 다시 말을 연속 항여

「그싸지가는 사람이 오니싸 저의 어머니는 밧셔저의 아들 생각은 이저바려갓습
니다 그려치만은 더히는 그리도 저의 어머니 생각만항고 언제면 우리 친어
머니를 만나보겟나냐고 물어볼제마다 이 할미는 썩가져리고 슬어어여되는것
웃습니다 이런디안에 저의부모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잇스런만은 어네아비의
일흠도 가르쳐주지 안이 항는 그런무정호부모가 이세상에 어디잇게 습니싸
초철이 나면 신세한탄을 오죽이나 항게 습니싸 저는 그 생각을 항면 불상항고 잔

인히서 못견디겟서요」

항며 로파는 눈물을 써는다 경즈는다만 고기를숙이고 먼산만바라보며 몸은
바름이느곳에 나무입식곳치셀나난디

정육주는 창연흔괴식으로 로파의말을듯고 잇는디 로파는항든말을 계속한다
「아죽은나히어리닛가 아모것도 모로겟시오만은그리도 오늘날은 저의부모의
생각간절흔모양이야요 저도저아희에게듯고 도련님이저와 방불항다항읍기
에 한번만나볼싸항앗습더니 지금도련님을보오니싸 과연 이상항게도앗습
니다육남의말은 제얼골이도령님보다 도령님의어머니 마님항고 더흠스항다
고항는말을 도령님에게도 드렸다고 후시저의어머니도 더마님얼골과 방불
항지안이항가항는생각으로 더욱제아히는마님을 저의어머니곳치 싸르려
고함니다그려 더히의정말어머니도 저마님곳치 얼골이어얼분시아가씨은
디부모가허락지안이흔 남편을엇다가지고 무한고성을 항였다는디요 그것도
발셔열한히 동안이올시다 지금은죽어습니다민는 그씨저의어머니되는사람
이서울통산 김소사디이라항는디가서 북쳐잇슬씨에 그김소사가 하로면역에
는 강가에를 우연이나갓다가 강에빠져 죽으려항는사람을 구항야가지고 다
리고왔는디 그사람인즉 저아희의어머니올시다 그날밤에 저아희를 나앗는
디 그후에더아희의하라비되는니가 올나와셔 저어머니는 즈괴시고을로다

려나려가고 그씨저의는 제가맛라가지고 길으려고 이식골로 내려와셔습니
다저아히맛후제 그외쵸부되는이가 돈십만량을 쥬면서이논을가지고 늘여
셔이야히를장성항도록 길너달나고히셔 그돈으로녀히더아히한아는 공부
를식이게되얏습니다 그러오나 더아희는입디셔저의부모의 얼골은교사
항고 항흥도아지못습니다그려 그리고혹시고별홀일이 싱기면 서울엇던홍량
반에게로편지를전항여주시는디 아히는발셔 저러케 장성항였셔도 흥번도보
러오지안이항고 엇지면부모즈식씨이에 그닥지무도항은지오 저는남이지요
마는속으로는엇지분흔지모로것습니다 철모로는것시 무슨죄가 잇습닛가 남
과갓치싱기기도항였건만은 더모양을만드러노으니 불상히셔 똑못살겟습니
다아이고공연히 쓸티업는말습을기다랏케 엇쥬엇습니다」

항며로파는 치마자락으로 눈물을써스며
「남이라도스정을드르면 눈물을안이닐슈가 업는디 천부모되는사람이 엇지
그닥지나모른체할가오 사람의 마음은안닌줄로 생각함니다」

데 심 스 회

로파는 열심으로 육남의신상에 디항야말을항다가 홀연히가넘어가고 사방이
저무러음을삼작정신을 차리며

「아이고머니 공연이쓸티업는 리약이에 발셔감감항였습니다그려 너무오리

짓거리고잇서서 황송하오이다 너 무져 무려 쓰니 저는 저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이옥남아

항코불은는 소리에 저편바회그림으로 좃츠 옥남과 정남두아히가 다름질하여
온다

정옥주는 감기(感氣)한마음을 진정치못함며

「오날은우연이 소설같은이약이들들었네 저러호호한회를 저의부모가잇고
서너버려다니 참세상에는별일도다잇난것이로구 옥남이네 너가오늘보기는
처음항였스나 마음에는 더단이키여운생각이나나날마다우리게로 놀너보너
주게」

「네그렇게aget습니다 아모조록 불상이아르서서 사람되도록 가르쳐주십시
오 안녕이주무십시오 마님께셔도 안녕이주무십시오 저는가겠습니다……」
「이이옥남아 그만집으로가자」

로파는 인스를맛친후 옥남의손을잇글고 저의집을향하여간다

그로파는 집으로도다가는길에서 심중으로생각하되 지금의보는 부인이옥남의
모친과 얼굴이흡스하나 벌써십여년전개본 얼굴이라 확실하게는생각지못함겟
스나 옥남의 신체리악이를홀썩에 가만히그리석을 슬피건디 심히렘여하는모
양도보이며 그남편에게 천연한동정을 보이고저야 소식을억지로 나타너지

안이항는거시 필연옥남을 저의의아들인거슬 짐작할인듯하니 일후에 그 부인
을 종종히맛나는날이잇거든 전후사실을 저세히무려보리라함며 이리더리생각
하고 정신업시 나아가는디 엽혀서짜라가는 옥남이네

「여보어머니 저정남이어머니하고나하고 어머니가보아도 정말얼골이
소응……」

항며 옥남은 붓그림을먹음는다 로파는 그말을듯고 불상히역이며 정남의억지
를어로만지며

「웃고말고 여부가잇디 너는너의어머니얼골을 보지못하였지만은 나는 너의
어머니얼골을보왔던디 그이가꼭 너의어머니얼골갓드라」

「혹시 너의정말어머니가되는지 또 알슈…… 언듯보면 너의친어머니로도
알개드라 얼골도엇지갓흔지」

옥남은 눈의광치가돌며

「정남어머니하고우리어머니하고 정말얼골이 그렇게갓소」
항며 더욱무음을 진정치못함며

「그런치만 정말우리어머니는안이저오」

「안이다 너의어머니는 나히가더만앗슬터인디 그이네편 절머보이지안이하
디외양으로보아서는 나히를알슈업지만은」

옥남은 더욱 열심으로

「그렇네가 우리 어머니 얼굴이 그러하오 나는 언젠나 우리 어머니를 보나」

로파는 옥남의 모친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보미 스사로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이이 옥남아 그량반들이 너를 티단이 귀이하시니 너일부러라도 놀여 거던양 신관으로 가서 놀아라 너가 보니까 고 디 답하고 왔다」

「그러치만 나 혼드는 붓그러워……」

「붓그러기는 무엇시붓그러단말인야 정 붓그러워 너 혼드드러갈슈가 업거던 그 문간근처에라도 가서 놀고잇스려무나 그러면 정남이도 놀너 밧갓해 나올 터이오 다른 이들이 리도 보면은 드러오라고 할터이니 그리드러가서 놀거든 그사나 회냥반이 안게서 거던 너의 어머니 얼굴갓다는 그냥 반엿해가서 말을 해보아라 그러면 그냥반도 네게 떠나지 안코 귀이서 못견디여 할실터이니 너도 친 어머니로 알고 리야이를 할렘으나」

옥남이는 점점 안광이 빛나며

「정말 나를 귀이 할가오 그러치만 붓그러워 서엇더케히…… 정말 어머니도 안

이인데 어머니라고 하오 우리 어머니가 안인데 암만 어머니로 알면 쓸티잇소」

「그러트리도 너의 어머니하고 갓흐닛가 어머니」 하고 잇스면 어머니도 되

려면 되겠지」

옥남은 혼조말로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안인지 모로겠네 정말 우리 어머니 갓흐면 도케지만은」

하며 어린 가슴에 무흔흔 생각이 가리워 유예하여 정남의 모친이 곳나의 모친인 가하는 의심이 가득하다

데 십 오 회

로파와 옥남 두 사람이 조의 집을 향하여 도라가는 것을 정옥조의 부부는 이윽

히서 쳐보다가 홀연 경조를 도라보며

「오늘은 우연이 가궁홀리약이도 다 들었소 부인은 엇지 생각을 하시오 그로파

의 말하느바와 갓흔 변변하고 영니 할아회를 친부모가 잇다 할면셔 바려두고

도라보지 안인체를 하는것은 엇지 할소견인지 진정그것슨 사람의 정이라 일우

으지 못하겠소……」

「응 부인이 세상에 는 무서운 죄악이 비밀중에 류행하는구려」

하며 차탄하기를 마지 안이하고

「그런치안소…… 아모상관업는 남이라도 그 스정을 드르면 불상이 알터인디 아모죄도 업는 어린아이를 저의 부모의 싹싹 품속을 떠나게 할야 저의 부모는 아조이져 바리고 세상에 는 은근이 숨기여 두니 그것시 무슨 싸닥인가 생각

을향여보오 그런부모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것시안이이라 금슈와 갓흔마음이니 나눈이와갓흔죄악이 이제상에 종시도업셔지나 안이흔것슬 생각할면 정 말로몸이떨이오 감아니싱각할여보시오 저불상할아희는 저의부모의죄로할 여 일평생을 그늘속에서 지니지안이할면 안될터이니 죽다시말하고보면 범 죄의희생(犯罪之犧牲)이될이로구려 그러하나 이것을즈비심(慈悲心)이업다 할난지 인도(人道)에버셔났다 할는지 실로가증가이흔일이오」

지금까지 무음을여제하고 정신을지렁하야 있던경조는 이제에니르러는 발셔 인리를 능치못할게된지라 홀연몸의 중심을일어 물가로향하여 쓰러지려할다 그러나 그색에맛참 그 남편이 괴절하여 넘어지는 안희의몸을 붓줍엇슴으로 다행히 몸이넘어지는티에는 이르지안이할였스나 경조의눈은 충혈(充血)이되고 얼굴은 혼빛갓치되였다라 그러는 그색는 다행히황혼이되어 점점어두어가는색인고로 경조의이와갓흔 고이흔괴석은 그 남편이확실히 아지못할였다라 정옥조는 안희를안어서 니르키며 황망히

「여보 이게웬일이오 별안간에 어셔니려셔오」
경조는 간신히 목소리를 입뱃게되어

「예.....아.....무엇치도안이해오.....노심시오 일어설터이니」
「정말이오 정신찰엿소 위티하니 니게잔뜩의지하고 실녀셔오오」

「관계치안하니 노오셔오 령감」
향며 경조는 남편의붓든몸을 피하고자하나 정옥조는 위티할가 령여하여 경조의팔을 부익하야붓들고

「자— 이러케하고갑시다 이러면 녀여업시 넘어지지는안킷지 내게잔뜩의지 를하오.....」

정옥조는 서서이경조를붓들고 거러가며 말을한다

「부인이 오날의외에 녀오비창흔리악이를 드러서 잠간상과가되야셔 정신을 몰났든거시오 본티사람이라하는것은 의례히 그러할거시야 그러나 그러할 리악이를 연약하고 또는병중으로잇는 부인의귀에 듯게할거시 내가잘못이 오나도그리악이를듣고셔는 마음이엇져도치못했는지 모로는데 황초부인이 야더구나 말할것이잇소 우리가이리나려올제 의원에말이」

부인의신경을(神經)적격(刺激)할싯흔리악이는 결단코들니지말나고할던것 을니가 그만명심을할지못하고 앓박이져바려구려 어셔려관으로가셔 편안이 쉽시다 그런데 지금어듭기는하고 바름은찬디 오리바름을쏘이고 잇셔서 그것도몸의 해롭겟소 아 그것츄니가 아쥬오날 지각업는것을향였고」

「안이야오 인데는 아모로치도 안이히오 팔을노오셔도 녀々히거러갈터인디 노셔요 관계치안으니.....」

경조는 이와 갖치 천절흔 늬편의 위로와 늬편의 몸에 의지한것을 다른날이면 몸
에 심히 깃잡게 생각 홀터이로되 다만 지금은 조귀의 죄만 할 신상을 생각함이 늬편
의 몸의 갖가히 못드는것도 늬렴으로는 극하공구하게 생각 한다 정남은 모친의 염
혜와 서얼골을 치여 다보며

「어머니 인제는 관게치안이향오」

「응 인제는 다나았다」

정옥조는 허우스며

「이이 정남아 너는 어머니가 있어서 조케다 그러하기에 어머니를 참위하여
야 한다 응」

향며 정남은 흥선후후하여 설아가며 소리를 높히하여 창가흔마디 그 소리에 산
울니고 다시 해상물우에 흐트러진다

누 옥 쌍
데 십 류 회

이날저녁에 경조는 손에 슈저도 들지안이향고 남편의 권하는 말을 좃추 일즉이 붓
터 조리에 누어더라 얼마지니여 침변에 다른 사람은 업고 다만 정남이가 잠들어
누어 잘뿐이라 경조는 사람의 이목을 쓰리어 지금까지 참고 참었든 가슴이 일시
에 터져서 얼골을 가리우고 레읍하기를 마지안이 한다
부친리괴장이 항상말이 죽었노라 향더니 그말은 거짓말이요 어니곳에 든

누 옥 쌍

지내가 통산에서 나온 조식이 지금까지 살아있슬리라 향는것은 경조가 흥상심
중으로 의심하는바이더니 오날일으려서는 그의 심을 목전에서 해석함을 엿뎠다
라 그러나 경조의 몸에 덕향하는 조귀의 나은 아달이 지금것무사히 장성하여
있단말을 확실히듯기만하여도 임의가 뒤잡지 안이 할대스어날 그아희가 현금
조귀가 병치료초로 내려와 있는이곳에서 잘아다가 오날은 남편의 압해서 모조가
서로 묵々히 상봉하였스니 이일은 경조로 하여금 진실로 참기 어려운곳이라 그러
나 그날날부터 그아들정남의게로 옥남의 사실을 대강들었는고로 늬심에는 임
의 칠팔분의 의심을 품었던터임으로 그때에 십여년만에 만나느니의 아들을 보고
도런연흔 모양을 간신이 지었거니와 만일 그러치 못할더면 그씨에 괴절을 향던
지 그러치 안이향면 뜻밖게 일에 놀니여 상상흔 행동이 남편의 눈으로 씨웃 친비
잇슬는지 모를것이로되 경조가 맛참니 남편의 마음을 사지안이 할바는 오날
씨지라도 공교이 극도에 일은 경우를 당하여도 가슴에 싸어두고 외면에 표시
하지 안이향는 성질을 양성흔 소이다라 그러나 경조는 남편의 안전에서 옥남이라
향는 아희를 한번 보았슬씨에 나의 가슴고 갑흔속에 감초와 잇는 본능(本能)이라
향는 것이 홀연 옥남으로 하여금 늬의 아들로 인정하는 동시에 남편을 속이고 있던
조신(自身)의 죄를 삼아 잇는 증거물(證據物)과 한가지로 목전의 상제(上帝)의 심
판(審判) 접흔일을 써다라더라

어나씩단지 상대의 심판이 몸에 일을 줄은 임의 밋잇는고로 항상 두려워하던 경
지는 가령오날은 심판을 면한다 하여도 그 심판하는 날이 오기가 머지안이 흠을
세다 랐는지라 그러므로 경지는 그의 운명(運命)이 좌우간에 정혼줄을 짐작
하였더라

쌍
옥
누

경지는 나의 신세가 장차 엿지 될가 하며 생각할새에 남편을 위하야 정남을 위하
며 또는 옥남을 생각하야 그의 몸과 혼가지로 막곡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 그의
죄로 하여 그의 호을로 보는 것은 가혹거늘 남편과 아들이 모다 그의 죄악으
로 하여 일성을 참담지중에서 지리리라 함이 이러하 생각은 실로 경지의 아립다운
런성으로 하여는 잠시도 참기 어려운일이러라

경지는 남편과 아들에게 덕하야 그의 책임을 생각할새에 혼편으로는 오날 처음
맛났던 옥남을 위하야 무량한 생각이 일어난다 서병슴에 덕하야는 원한이 있다 할
지나 엿지하야 너의 아들이야 미우리요 정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즉 옥남을 사랑하
는 마음이라 정남은 그 모친의 싸뜻을 사랑을 입고 양육을 받아 거니와 옥남에 덕하
야는 그로 파가원망하던 말과 갖치 조금도 부모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얏슬뿐안이
라 아모리 병중이라 하나 일시는 그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무정 혼행동
을 하얏스니 이 죄를 속하려 하면 한업는 사랑을 정남에게 준다 하여도 오히려 부족
하리라 생각한다 그의 또는 옥남의 위인이 출중하야 실상 정남과 형제라 하야도

쌍
옥
누

조금도 붓그려울 것 시업도록 령민 할 것을 보미 더욱이나의 죄가 두려우며 마음디
로 세여 안고 마음디로 사과하여 본리부터 모조든 일을 말한 후에 모조가셔로 붓
들고 마음디로 통곡을 하고 심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갑히 실나어잇는 죄열로
하야 모조가셔로 통정하기를 용서치안이 한다
경지는 옥남과 모조의 의를 잇는 날이면 그날은 남편에게 죄를 지복하는 날이라
숨흐다 저녀지는 지복함으로 인하야 한아슬 옥남은 엿을 지나 또는 일로 인연하
야 남편과 정남을 일논디 이를 터이니 이 일을 장조엇지 하리오 이는 심약할경지
로 하야금 쳐스키어려운곳이러라

대 십 칠 회

더욱이 옥남의 스정을 드른후 이 세상에는 은근한 죄악이 성형함을 심히기 탄이녀
이는 남편의 말을 드르미 경지는 더욱 두려운 마음만 더할뿐이오 그 옥남으로
하야금 이곳에서 우연상봉케 함은 하늘이 이 몸의 지복함을 기회를 주심히 안인가
생각하야더라 그러나 경지는 그 지복코지하는 마음은 다시 업서지니 이는 경지
가 죄악을 어지로 숨기고 하야 그러함이 안이라 성약한녀 그의 마음으로 능히 지
복함을 믿을 결단치 못함이러라

전일갓흐면 오히려 말할 것이 잇슬 것이로디 지금에 일으러는 임의 정남이라 일가
라난 아들도 두잇스며 인연이 잇서 부부의 의를 밋진후 연구세심할사록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쁜 정리는 경조의 마음으로 하여금 전허육육이외(肉慾以外)의 정신덕연의(精神的戀愛)를 써다라 전일경조가 녀학성시대에 이상(理想)한 단바와 갖치 리상덕가정(理想的家庭)을 성립하였스미 육체(肉體)의 사랑보다 정신(精神)의 사랑이 점점 깊혀간다 비록 육체덕이정(肉體的愛情)은 지금에 쓴 어저바린다 하더리도 이 몸은 항상 남편의 몸에 정신덕사랑을 다하여 천만년을 가 드리도 변치 아니 하리라 생각하는 경조의 마음은 조그 몸보다 무수일이던지 남편을 위하여서는 삼생(三生)의 괴로오미라도 사양치 안이 할 몸이니 만일 조그가 오늘날 죄악을 조복하여 남편의 마음을 편안이 하고 남편에게 행복이 될 줄 알진디 비록 조그의 몸은 조복한 결과로 하여 리혼을 당하여 여하히 박명(薄命)한 녀조의 몸이 될지라도 추호만치 실여 하지 안이 할 마음이로되 원리의 사실이라 하는 것은 마음과 갖지 안이 하여 만일 조그가 죄과를 조복하는 날에는 조그보다도 오히려 남편의 몸이 더욱 불행한 지경에 빠질 일을 짐작함으로 지금에는 다만 남편과 정남을 위하여 번뇌하기를 마지 안이 한다

임의 조그의 일신은 부침(浮沈)을 도라보지 안이 하는 몸이나 마음은 죽는 것보다 더욱 심하고 동(苦痛)을 겪고 잇스니 실로 살아 잇는 것이 도로 허죽음보다 괴로울 지라 지금 경조의 사랑은 찰아리 전사를 남편에게 조복후에 몸은 저와 갖흔 묘요 할창히 물결스이에 가라 안저 히 초와 혼가 지로 써는 것이 오히려 사랑 잇는 고 정보

다나으리라 생각하나 남아 잇는 남편과 정남의 신상이 엇더한 비참한 경우에 빠 질는지 그를 근심함의 경조는 죽으려 하나 드터여 죽기를 능히 하지 못한다 슬아 서 조복을 할 자 하니 그 근심을 엇지 겪으며 죽어서 조복을 할 조하니 한번 결심으로 님 몸이 죽으면 이 몸은 오히려 안심할쌍을 엇을지나 이는 남편을 님의 손으로 죽이는 것과 갖흔 지니 생각하여 볼지라 그 남편의 연연함이 정과 당당함 덕의 심으로 반 다시 혼탄하기를 마지 아니 하다가 조포조그 하는 사람이 될지니 이는 원리 경조가 참아 능히 하지 못하는 바이라 경조는 좌스우량을 할나 맛참 님 덕 당항 방편은 엇지 못하고 삼결 갖흔 전신에 눈에 는 일천졸기에 쓰거운 눈물이 자리를 쳐서 인다 산란한 정신에 창문을 열더리고 멀리 창밖을 님여 다보니 텅지 암담하여 한점별도 보이지 안이 하고 황천(黃泉)으로 부터 부러오는 듯 혼바름 소리는 현세의 의가(現世之愛歌)를 알외는 듯 그스이로는 일흔도 하지 못할 바다 새 물이 들의우는 소리 적막한 밤 산에 울니여 들니 인다

경조는 다시 남편과 아들을 생각할 때에 오날 처음 만나던 육남을 생각한다 경조는 가련한 육남의 형용을 보고 또는 그로과의 원망하던 말을 다시 생각함의 흥중이 갈로 어이든 듯 하여 저와 갖치장성혼 나의 혈육을 지금까지 아지 못하고 육남과 갖치지 아니 이 몸의 괴박할 팔자를 엇지 하면 도호리요 남편의 눈을 그이고 모조 가감안이 서로 만나 나는 너의 어머니 다 너는 내의 아들이다 말을 일너 주기 어렵지

난안이구나 숨가기를급히하는경지는 남편을다시속이여 죄를거듭하고자 하지
안이하며 모조셔로니용을알은후에 그결과가엇지될는지 모른는지라 경지는오
열례음향며

「은근이 옥남을만나서 말을하고자하나 나의부정호소정을 아모리조식이기
로말할슈업스며 엇지하면 옥남이가 저의어미전일스정을 알게하여줄고저
의아바지말도 허쥬어야 할터이오 공연히모호히말하는것보다는여지라도
참고 남인체하고 지닌이여 도로허옥남의게는 유익할는지모로겟스니 내
나마음으로만 알고지니라」

데 십 팔 회

옥남은 지금학교로부터 도라와서 첩보자를방안에 넘어더지고 집문을나서나
이옥남의발스길은 스스로리경지의 주인하고있는 양신관을향하여더라

누 옥남이는 정남이를맞고자하여 가는것이안이라 원리의정남과스이가정답
다할겟스나 정남보다도 정남의모친을 가장스모하는사달이라 나를나아쥬신모
친을 항상맛는보고자하는마음이 간절할옥남은 그부인의얼굴이 저의친어머니
의얼굴과조금도 다름이업다하는말을 들었는지라 옥남은엇지하여 정남의모친
을 스모치안이하리오 하물며 저가련할옥남의 흉중에는 경지로하여금 후시나
의친모친이나 안인가하는생각이 난일도잇섯더라

옥남은 그부인을맞나지못하면 정남이라도 필연이근처에서 맞나리라하여 물
사모리위로 나가더니 홀연옥남의령민한눈은 멀니보이는 언덕위술나무아
리에서서 손질하여 이리오라부르는 엇더흔부인에 모양을보았더라

쌍 이부인은 다른사람이아이라 리경지니 그전날밤에는 천스만럼에 작은가슴에
무한히리우다가 그잇는날늦게야 몸을자리에서 내려남의 이즈하는정리에
음은발서 옥남에게가서있다 옥남이가학교로부터 도라올터썸하여 남편과정남
과 하인을모로게하고 홀로후문으로 쫓츠나아와서 아히들모히여 노는곳은 모
다단이며 옥남이가 후시와서 잇나하고 이리저리쳐다니더니 이석에맞춤 옥
남이가 더편으로부터오물보고 경지는사람의 이목이번다치안이할곳에 이르러
옥남을 손질하여부름이라

누 나의친모친이니 만났듯하게생각하는 옥남은붓그러운마음에 얼굴이 홀연불
거지며 한참동안은 목우인과갓치 우두커니서서잇스니 더아히의마음은 어제
야 비로소쳐음만나보던부인인디 그얼굴이 제몸을나아준 모친과갓다하는말을
드른후 항상사모하는마음이 맞나보는것을 가장붓그러히 생각함이라

옥남은쥬쳐하는동안에 경지의부르는소리 점점급흔지라 옥남은 본리활발할아
히라 곳붓그러운마음을 억제하고 천연이경지의압흐로 나아가서 공손히례하
다그러나 어린얼굴에 눈가으로는 붓그러운괴석이 창일듯얏더라

경조는 그 티로 붓잡아 안고 가슴에 싸인 회포를 말하고 조호나 지금은 어딴지던 지 너의 조식을 말하지 못할 사정이라 세상스정에 벌이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이 너 일흔이 옥남이래지 학교에서 지금이야 나왔니 나는 앓가부터 네가 보고 심혀서 이리로 도라 단넛다 호호」

호며 경조는 천연히 말을 놓나 웃는 얼굴에는 도로혀 눈에 눈물이 가득하여 옥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드려다 보는데 눈에 무한한 슬픔과 사랑이 가득한 것이라 옥남은 어린마음이 요동하여

쌍

「네 학교에서 지금 왔어요 그런디 나를 보시려고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호며 치여다보는 옥남의 눈에는 조기를 사모하며 조기를 붓쫓는 괴운이 은근이 보이느니라 경조는 다시 말을 정다히 하여

누

「나도 나온지는 얼마 안이 된다……네가 흑시를 가르고 이리저리……너는 엇지히서 여기 왔니……놀너온 길안야」

옥남은 붓그려호며

「놀너온일이 안이야 오……나도……저……」

「응 무엇이야」

호며 말할새에 경조의 몸은 벌서 옥남의 옆으로 갖가 하나 아간는디 그 고기는 점점 속이여져서 그 향기러운 숨결은 옥남의 귀사에 들니인다 경조는 문득 옥

남의 손을 잡고

쌍

「이러케 서서는 이야이를 할슈업스니 저리로 가서 조용이 이야이 하자」 호며 건너편 솔나무아리를 가라친다 옥남은 황홀한 정신으로 모친에게 손목을

쓰들녀 한가지로 솔나무아리 뿌리우에 거러안는다 경조는 다시도라보고 옥남의 옆으로 밧삿갓가히안는다 다시그 향기러운 숨결은 땀갓치 황연한 옥남의 땀에 다으며 땀과 갖치 단말소리는 귀사가에서 정정한다

옥

「이이 옥남아 놀너오지안엇스면 엇지히서왔니」

옥남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붓그러움을 억제하고

옥

「정말 나는 당신이 보고 심혀서 왔셔오」

경조에 안광은 점점 불거지며

누

「네가 보고 심혀서 왔셔 정말이야 응」

서로 얼굴을 치어다보는 두사람사이에는 한참 동안은 말이 업스며 뉘욱 갖흔 경조의 팔은 언의듬 옥남의 억기를 세어안엇더라

데 심 구 회

경조는 바람에 나무입새가 쌍에서 구르는 소리에 인적이 인는가 의심하여 황망이 옥남의 억기에 언젓던 팔을 나려노으며 좌우를 도라다보며

「옥남아 어찌케 너의 젓어머니가 무슨 호는 말이 업디 아마 너더러 무슨 말을 호

지

옥남은 무어시라 대답을 하여야 을 흘리는지 모르고 쥬져 있는데 경주는 다시
「그러면 엇지히셔 내가 보고 싶으니 학교에서 나오느길로 이리 먼저 왔구나 응
그렇치」

옥남은 어제 그 유모에게 들은 말을 하여야 도 흘리는지 하지 안이 하여야 도 흘리는지
아직 못하여 대답지 못한다

「응 엇지히셔 그래니 대답을 응려 무나」

「경주는 여러 번 대답을 치촉 응의 옥남은 할 일 업시 들은 말 디로

「더 우리 젖어 머니 가요 나 더 려 응는 말이 우리 어머니 얼굴이 똑 당신 얼굴과 똑
다 응길네 그려셔요」

「그리니 너의 젖어 머니 말이 내 얼굴 응고 너의 정 말 어머니 응고 얼굴이 꼭 다
응 더 란 말이 지 그리 그 말 밧게는 안이 응디」

「네 그 말 밧게는 업셔요」
「응 그러나」

「경주는 적이 안 심 응는 모양으로 옥남의 등을 얼오만지며

「나도 어제 게 너의 젖어 머니 흘레 리 약이 들 듯 응 엇지 마 음이 언 짠 든 지 어제 밤
에는 밤 재 도 록 잠 흘 숨 자 지 못 응고 울고 만 잇셔 다 네 스 정 이 불 상 히 셔」

옥남은 도로 혀의 아 응야

「내가 왜 불 상 히 오 웨 우 셧셔 오」

「응며 쥬셔 흘 리 혀 를 못 는 다 경주는 아 모 려 졸 아 지 도 못 응는 니 아들 의 얼굴 드 려 다
보며

「그것은 다른 사 닥 이 안 이 라 네 일 이 응 도 가 공 하 여 셔 나 쥬 지 을 엇 지 그 런 디 너
는 네 신 계 가 설 은 줄 은 아 지 못 응는 게 로 구 나」
옥남은 오 히 려 그 쥬 을 자 셔 이 알 아 드 지 못 응고

「나는 그 례 케 설 은 줄 몰 나 요」

「그러면 너 의 어머니 는 너 를 니 바 린 쥬 식 으 로 알 아 도 너 의 젖 어 머 니 가 귀 의 응
닛 가 그 리 셔 설 은 줄 을 모 로 는 것 신 게 지」
옥남은 그 제 야 비 로 소 알 아 드 응고

「아 그 말 숨 이 야 요 나는 무 스 말 이 라 구 요 나는 어머니 를 못 보 아 셔 설 어 못 견 디 겠
셔 요 우리 어머니 는 엇 지 셔 나 를 한 번 도 보 러 오 시 지 안 이 흘 가 오」
경주는 다른 곳 을 향 응고 눈 들 을 씨 스 며

「그 쥬 달 기 야 니 가 알 슈 잇 게 니 만 은 인 정 업 는 어 머 니 라 고 너 는 어머니 를 원 망
하 겠 구 나」

「나는 어머니 를 원 망 은 응 지 안 이 히 도 엇 지 셔 와 보 지 를 안 이 히 시 는 지 그 쥬 들

「모로겠셔요」

경주는 한참있더니

「그것은 이이옥남아 제상에사름치고 너저식을 사랑한이하는사름이 어디있겠니 너의어머니도 너를보고싶어서 못견디겠지만은 그속의는 여러가지로 스정있어서 무음으로는 보고싶어도 너를보지못하는……」

말을마지못하여 눈물이압흘 가리우며 목이미이는것을 억지로 우숨을씩우며 「하하나는눈이열버서 남의일을싱각하여도 눈물먼져나오더라 너를암만나보고싶어도 그결하지못하니 너의어머니는더구나 그무음오죽한겐니 그러니서어머니를넘오원망하지말어라 응너도인제차차크면 세상스를분간하겠지만 이세상에노별나만처하고 의리인정(義理人情)에스을너 우슈운일이만아서 가령지금너와갓치 이자리에서 서로만나보면셔도 모조가셔로말하지못하는일도 잇스니 그런슬흔스정이야 내가아죽었지 알겠느냐만은아모러런지 몸만성하게 무병장수하여 점잔아지면 그씨는너의어머니볼씨가잇슬것이지」

옥남이는 경주의하는말을알아드렸는지 못알아드렸는지 가련흔얼골로 경주를치여다보며

「그러면 우리어머니는 나를보시드리도 니가네어머니란말을 안이하시나오

경주는 우는얼골에 우숨을씩우며

「무슨너의어머니가 그리흔다하는말이안이다 그러흔일에는 어머니되는이가 의례히제상에서 죄를만히지은사름에 그러흔거이지만은 죄지은사름만하야도 잇지할수업는사닭으로 그모양이된거이니라 그러흔사름은 엽혀서미일보고기르느아들보다도 더무음에는 불상하여이어서 자나체나 잇지를못하고내싱각만하고 잇슬는지아나냐 그러닛간 남들은아모리 너의어머니를욕을하고 몹시말을흥드리도 너흔아는너의어머니스정을 싱각하여셔 아못조록 원망하지마라 만일 너서지그어머니를 원망하면 너의어머니되는사름은 츄설은중에도 더구나의락할곳이 업져질터이니……하하참우습다 니야말로정말너의어머니나 되는것갓치눈물이 것잡을씨가업시나오는구나」

하며 눈물애어리운 경주의얼골을 옥남은무엇을바라는것갓치 바라보며 「당신은혹시우리어머니가 안이신가오」

데 이 심 회

경주는 그말에쌈씩놀이며

「이이그게무슨소리냐 나는너의어머니안이다」

옥남은 그말을듯고 락심하며

「저세히아지못하고 경솔이무른일을 부끄리며 고기를속이느 모양을보리 경

조는 더욱 흥취한 마음을 익이지 못하여 이 자리에서 서서 붓들고 모조간 되는 일을 말하려 한다 다시 참으며」

「그러치안타 너의 어머니는 안이지만 나는 내 생각을 하니까 너는 식이나 다름 업서 불상하여서 못견디겠다 네가 정말 정남이 형이 되었스면 도울 것을 될 일 못하면 너라도 네 어머니가 되어 주겠다 만은... 그러케 한 슈도 업고... 네가 지금 어머니 못만나 보는 것도 피츠의 운수가 불행한 사다이라고 알고 잇스려 무나」

옥남은 폴스귀가 한 아도 업서 듯고 잇더니 다시 고기를 들어 경즈를 치어다 보며

「나는 압만히도 우리 어머니를 맛나 뵈을 수가 업슬가오 니가 어머니라고 불너 서 못슬 것갓흐면 어머니 한테라도 어머니 만나 보앗단 말은 안이 홀터인디 단 지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니가 네 어머니라고 말하마디 만하여 주었스면 도켓 셔오」

우 하며 어린 눈에 이슬갓흔 눈물이 눈썹에 어리엿다 경즈는 다시 옥남을 세어 안으며 능기는 소리로

「아 참이이... 나는... 나... 남이라도 그 말에 안이 올슈가 업는데 만일네의 어머니가 드르면... 네가 그닥 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잇는 줄을 알디경이면 싸 가 녹는 것갓갓다...」

우며 경즈는 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씨슬썩에 언덕아리 산모롱이로 조 초어선(漁船)

한척이 돛을 놓히 달고 지너여 가는데 그 비그림자가 지너며 언덕아리로 한어린 아히가 낫타나니 이난 정남이라 정남은 모친을 차지 이리나왔다가 좌우를 슬퍼 보더니 이편 언덕우에 경즈와 옥남이가 안지 잇슴을 보고 다름질하여 쫓차 올나 오며

「아 어머니 어머니가 저기 계시구려 옥남이 도잇구」

경즈는 정남의 목소리에 쌀쌀 놀녀 몸을 이러설썩에 산모롱이로 부터 유모도 뒤를 조차 오는지라 경즈는 급히 눈물을 씨스며 옥남을 도라 보며

「옥남아어나 썩든지 어머니하고 만나 볼썩가 잇슬터이니 과이그렇게 설어호지 말아 너의 어머니는 또너를 보고 심어셔 주야로 놓나 남썩 축원을 하고 잇는 지아나냐 정남이 하고나 정다아 놀아다고」

제하고 디답을 썩에 정남은 말셔 언덕우에 일으러 모친의 치마 압해안기며

「어머니 입디져 여긔 잇섯소 나는 어멈하고 앓가 부러 어머니를 쳐저 당겅지」 하며 다시 옥남을 향하여

「너도 여긔 잇섯니 나는 여긔 잇는 줄은 조곰도 몰나지 앓가 부러 비가 스리어셔 이위가 보여야지 우리 어머니 구리 약이 하고 잇셔구나」

「응」

정남의 뒤를 좃츠오든 유모는 이제 야간 신이 일으러

「아이고마님 여기계셨습니까 그런것을알가부터 도련님하고다른뒤로만츠
즈다였지요」

「아이고마님을힐깃 바라보더니 무슨생각을하였는지 다시경주의얼굴을 치어다보
며

「아이고 세상에도 마님이 아희을시다그려.....」

「원」

「아이고 정신업시옥남의얼굴만 드려다보는것을 경주는천연이 하우우스며

「자네가보아도 그의얼굴이 우리정남이와같은가」

「아이고머니마님 갓흔거시 무엇시오닛가 마님신석을 아조씨쏘왓습니다저
는말로만드러지지 이렷게잘싱긴 아희줄은몰낫셔요 모르는사람이보면 도련님
하고 정말형제간으로 알겟습니다그려」

데이십일회

정옥주의일행이 이곳에나려와 유련흔지가 발서륙철일을 지니엿는디 경주의
두려운마음은 날이갈수록급해가나 그러나 날로옥남의얼굴을 더흔는거슬이
세상의다시업는 질거음으로알고 스스위로항기를 마지안아흐다

경주는하로라도 옥남의형용을 보지못하면 모습을정지어려운지라 그러흔일을
아지못하는 남편의눈을 그이고 나의감추어둔이들과 서로만나보는거슬 남편

쌍

에게티항야 가장 죄가급허가는줄을 모른것이 안이로티 지금이으러는 좌우
를도라볼 여가가업사 다만마음이숨속에서 방황하는것갓흐니 경우와리치를
보지못하고 잠간동안에질거음일지라도 미일옥남의 얼굴보는것으로 마음을위
로흐다 그러나다만홀노히변에나아가서 옥남을만나는것시 여러날을지니면
사람의스심을일으킬가항야 엿드흔날은 정남도다리고나아가며 그남편을쫓츠
산보홀씩도만흔고로 사람의이목이걸이여 옥남과모즈의정을 드리여 녀넌히흥
치못하였더라

옥

옥남은 뇌심으로 경주를참모천으로 써다랏는지 못하였는지 모로겟스되 옥남
도항상경주를사모하는마음에 미일학교에서 도라오면 반다시양신관근처에일
으러 경주의형용을 기다리고잇스며 어린아희의마음이나 정옥주의압해셔는
경주에게 붓쫓는거시 자미업슬가항여 범연하게흐다

누

경주는생각항되 가령옥남과 모즈됨을 설과홀지라도 저렷듯영민흔옥남이
타인은고스항고 그유모에게도 말안아홀줄을 짐작하는고로 그간절흔옥남의마
음을 생각항여

「니가나의어머니다」

흐마디말항여유기를 여러번항였스나 아죽도그기회를 엿지못하였다항야 다시
마음을 돌니엿더라

만일그러하면어나씨에나모즈정을떨기회를어으리오오늘은모즈가말을씨
가안이라싱각하는경지는다시그기회가있을씨를싱각함이초연히몸서리가
세침을써닷지못한다나의죄상을언의씨던지남편에게말하지못하면결단코
그기회가도라오지안이하지니숨흐다경지는언의씨던지남편에게즈기의죄
를즈복할날이있스리라하며자과는결단코즈기의죄를디하에씨지가지고도
라가려싱각하는사름은안이라가련한경지는언의날이나옥남과서로손을잡고
모즈의정을동항리요경지는반야심경에이제상에서죄일이길흔모즈두사름
의사정을위하여통곡안이하는날이업더라

일일은공주읍니로부터리과장의편지가경지에게향하야왔스니그편지는정
옥조일행이복포에도착하던이른날부터였다라리과장은기성서부터경지의
편지를보고목포로나려간단말에홀연심경담전함을의의지못하니이느누구던
지그사름의일은가히상사하야도알일이러라

부친의편지에는옥남의일은조곰치도말하지안이하고다만요스이에느가장
몽스가흥하여마음이밋칠듯하니이늘은아비를싱각하여도그곳에오리있지
말고도라오는뜻으로장황히편지에써서있는지라경지는벌써부친의편지스의
가그외에다른염려가있서싱말씀인줄알었스나그부락이임의쓸씨업서되
고지금의비록서울노을나간다하니옥남은임의년의아들인줄을알고모즈가

은근지중에서로만나보았스니오허려일은느졌는지라그러나경지는이와갓
치부친은염려하여편지부터싱심중에야오작이궁금하시라느마음에엇더케
하리오하는싱각에또한근심하기를마지안이하다

데이십이회

두아히가서로손목을이끌고창가를화답하며히변스가바회스이로다니는디
이아히는옥남과정남이라두아히정다이드느모양을다만홀노히변에서산보
하며있는정옥조가볼씨에그스름의가슴에는이상흔마음이나타는다

실노이두아히스이에느보이지안이하나무슨관계가은연중에있는것갓치싱
각하니이느사름이지은관계도안이하또는날이저은관계도아니나다만그
두아히사이에느즈연지중에무슨교칠갓은관계가있느다시싱각하였다라

일즉이그결백호몸에한점의심을두지안이하야거의선녀가하강흔듯시듯터
운진용을두었던경지가숨어있는죄악이잇슬줄을꿈에도뜻못하였쓸씨외라
요사이경지의모양을보더리도다시그안히를의심하는디느일으지안이하엿
더라

정옥조는원리의그안히를싱용하는연고로보통사름갓흔면발서조곰치라도
의심을느지안이치못하였스리르디지금에이르러그안히의모즈와옥남의얼골
이그와갓치흥사흥건만느심히의심하는디느이르지안이하고오날스씨지이

쌍

옥

누

르렀더라

그런고로 경직한사름에티는야는 한가지로 의심이르키지안이하나 아무관계 업는 두아히스이에 이와치용모가 방불하티는야는 비록 조금이라도 이상한일이라고 생각안이치 못할지라 그럼으로이일은 히석기어려운 암합의일이 라겟스나 다만우연한일이라하면 모다조물주의 교묘한능력에 돌닐뿐이오 사름의지식으로는 히석지못할지라

그러나 정옥조는 오날우연히 심중에피이흔 생각이니라나 오날날까지는런 위(天爲)의 작용(作用)으로돌니고 고이히녀이지안이하엿더니 지금 이르러서 는 천디자연한리치외에 다시엇더흔관계가 그속에포함하야 잇는것갓치 물론 지중에 마음이움작인다

흔참동안을 여러가지생각에 침음하고서서잇던 정옥조는 이석에더편으로부터 옥남의유모가 옥남을츠즈오는모양을보고 정옥조는그로파의 압력으로갓가하나 아가며

「여보게할멈 그간괴운이 엿더흔가 오날은일과가 미오조와이그려」

「아이고 령감마님 나오섯슴닛가 혼즈이러케 운동을나오섯셔오 옥남이날 마다 령감게가서 놀다가는놀을 무얼만니쥬셔셔 가지고도오고 먹고도오나 제마음에 엿지황송흔지 한번가셔마님께도 뵈옵고인스나 엿줍자하면셔도밤

쌍

옥

누

낫별으기만하고 못갓습니다」

「아 천만에 그런인스는그만두게 그러나할멈도 틈이잇거던 더러우리게로 놀너오게는그려 옥남이는 요스이날마다두고보니까 아히가정말창취스성이 잇고 쓰겟거던」

「아이고 그러케 여러량반게서 칭찬을하여쥬시니 황송무지하외다」

정옥조는 허々우스며

「정말그아히는 참니마음갓흐면 셔울싸지라도 다리고가고십은데 너가지금 말이지 그옥남의얼굴과 동작이모다 우리정남과방불하니 그어머니는엇더흔 사름인지 저세는아지못하나」

그로파는 고기를기우러트리며

「예 글세요 자세는알슈업습니다」

「일흔이 무엇이라고히든가」

「저아히어머니 일흔말씀이 오닛가 일흔은알르켜디릴수가.....」

정옥조는 우스며

「허허 참 그러든가 그러면 일흔을잠간가르쳐쥬게」

그로파는 더욱더옥의아함여

「그말씀은 엿줍슈업습니다 그말씀을만일하엿다가 그어머니얼굴에 석기는

일이 싱기던지 하면 잊지 흠닛가」
「그러면 대단히 비밀하게 은회하겠다는 말일세 그려 정이 그리 혼거시야 닐
가 여지로 잊지겠나」

별로히 정옥주는 구지 알고 지는지도 아니하고 천연이다 른곳을 향하는지라 로
파는 비로소 안심을 하며

「령감마님 할미는 밤바서 먼저 감니다」

하며 옥남의 뒤를 좃쳐 따라 간다 정옥주는 그로 파의 가는 모양을 물스럼이 바라 보
며 팔장을 세고 한층 잊더니

「대체 그 아히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하며 혼조말한다

데 이 심 숨 회

경조는 늘은 부친의 멀리 녀는 시는 모습도 생각 아니 흠이 안이요 오리도록 이곳
에잇스면 조그의 신상에 도 유익이 적을 줄도 짐작하나 두려우며 염녀할 면서 도
오하려이 곳을 잠시라도 떠나기 어려워하니 이는 다만 나의 혈육되는 옥남의 사랑
을 빼치지 못하야 비록 잠시 간이라도 꿈과 갖치 미지 못할 일을 계속코자 흠이 러라
이 날도 경조는 정남을 다리고 해변에 나아 왔는데 경조의 발길은 스스로 먼 점에
옥남과 한가지로 안져서 리약이 할던 언덕 위 소나무아리로 향하여 지며 그 언덕을

경조는 이 위에 업시 사랑하니 이는 처음에 옥남을 이 소나무아리에서 만나 스며
그 후에도 항상 옥남을 이곳에서 만나 보기 쉬운 연고로 경조는 이 언덕 위 소나무
아리를 잊지 못 흠이라

경조는 그 언덕 위를 향하야 간은 동안에 정남은 그 모친의 열을 썬나 이곳저곳으
로 작난할 며 잇다가 다시 모친의 업으로 올썬에는 경조는 벌써 언덕 위에 일으
러 솔부리우에 거러안즈며 한손으로는 슈건을 받치며 턱을 괴이고 실음업시면
산을 바라 보며 만단 생각이 가슴에 열기 었다 정남은 모친의 수심 잇는 모양을 보
더니 모친을 위로코조 그리 하는지 어리광을 부리며 모친의 무릅에 미달이여

「어머니 왜 그리시요」

경조는 면산 바라 보던 눈을 정남의 얼굴로 옮기며 간신이 우음을 짓고

「아니다 무얼 잊제라고 그리니」

「그럼 어머니 옥남이 불너올가 나는 옥남이 짐도 알아오 오날은 반공일이 닐가
학교에서 일즉 파하얏겠지 오 잊지 놀너 오지 안이 하나..... 어머니 참 닐가가
서 불너 오릿가 나도 옥남이 하고 놀고 심은디」

정남의 어린 생각이 라도 옥남이 틀 불너 오면 능히 모친의 수심을 위로 흠을 었으리
라고 생각 흠이 러라

경조는 눈의 눈물을 먹음고 정남의 얼굴을 한층 보더니 무심 생각이 닐던지 정남

을의그러 무름우에안고 다시말이업는지라

「응어머니 닉가서 옥남이다리고오리다」

경주는 정남의머리를쓰다듬으며

「옥남이는 저의집에 일만업스면 네가가서 불은지안이히도 이리온다 조금 만기다려보렴.....그이논로과도날을보지못하면 션々히서 못견디인단다」

「어머니나도 옥남이를보지못하면 못견디겟셔오 인데을씩가되였는디」

「아 어머니 옥남이저괴오는게 옥남이안이오」

저편으로부터오는 옥남의모양을보더니 정남은마조쳐가서 손목을셔르려잡고 두소년은 모친압호로 나온다

경주는 형대두아희를 좌우로안치고 고요한술나무아리에 안져셔 망연이희석을 바라보니 경주가잇세에 잠간동안은 천스만렴을 다니져바리고몸이천상에 올라 쾌락환가정의 지미를다시만나듯이 즐거운심을 형시에부고있다

「너의들은 언제까지던지 형제갓치 변하지말고 정다히지니라 응」
옥남은 이말을듯더니 홀연비창흔괴석이 얼골에창일하며 실음업서

「쉬 서울로들올나가신다지오 나는어머니도업고 동모도업스닛가 다시못만 노뵈을 생각을하닛가 나는.....나는설어져 못견디겟셔오 나는오날젼어머

니한테 모다들 서울로올나가신다는말을듯고 엇지설은지 앓가부터 학교에 가서 이씩까지 올기만히셔요」

네이십스회

경주는 옥남의말을드르미 가슴이룩난것갓다 옥남이가 경주와 리별항기를이와갓치슬퍼하면 경주가옥남을 리별항는마음은 오히려더욱슬푸고 괴로울지라 엇지옥남과 리별을항며 옥남을이져바리고 엇지발길이도라스리요 경주는옥남과 리별을날이점점 머지안이힘을 아는고로 엇지어린지식을 이져바리고 도라가리요항여 날로그를근심하는터이라 경주는소사나오는 눈물을금지못하며

「일상이러하게 우리가다모여잇스면 좃치만은 이후라도 또다시만날스이업슬리아잇겟디 너도여기서 쇼학교를졸업하면 서울로공부할러온다고항였지 그러면 그씨는 또다시만나보지안겟디 이이정남아 너는아죽어리나 너의세리 이후에라도 셔로잇지말고 장성히셔 어른이되거든 또이렇게흔가지로정답게지닌다고」

두 아희가 한가지로

「네」

디답하고는 다시손을셔로부터고 몸을일어 희번으로항항여 조리를쥬으러가는 모양이라

경조는 두아희의 손을잇것고 가는모양을 뒤으로바라보며 망연히흔찰동안을서
 사있더니 문득 길게한숨을지으며

「엇지면 아히들세리 저독지정다올싸 더의가명말형데되는것을 가라쳐주고
 나도저의어머니라고 말하여주어써 정말정답게노는양을 보앗스면 이세상
 의스라잇는 락이잇겟구면은…… 남々셀린줄을알면서 저러케정다운거슨아
 마피스줄이키여져 그러흔거시지…… 옥남이논 원악영리흔아히라 닉가저의
 어머니줄을반이나짐작호모양이니찰알이바로말을하여줄가부다…… 안이그
 리도 그러치안이하다 오릭이곳에서 잇슬것갓호면 모로지만은 멧칠안이잇
 스면 서울로올나갈터인디 아모말업시가는거시 오히려옥남의신상에 유익할
 듯하다」

두소년은 희안으로향하여 나아가며

「이이 우리어머니가 너도피귀이하시지」

「그리 참 너의어머니게서는 편은정답게하시더라」

「그리고 우리어머니말이 너고나고 다갓치귀업다고하시드라」

「응정말」

「또그리고 너는우리 어머니를 하로도못보면 못견된다고하시드라 정말그
 러하냐」

「응그리요 명말」

「우리어머니도 너를못보면 못견된다고하시드라 정말그러냐」

「응그리요 명말」

「우리어머니도 너를못보면 보고심호신게드라 너고나고 정말 우리어머니
 티스에서나왔드면 좀조왔겐디」

「정말우리가 형데갓치저너즈구나 그리다 우리가 다어른이되거던 한집안에
 서슬즈응」

「나는 너고싸루살기가실라 너도서울로올나왔스면 좃켓다만 접티우리아버
 지가 네가서울로간다면 다리고가겟다고 날다려하시드라」

옥남이논 깃거하는빛을 만면에씩우며

「아정말나도 참정말가고심다」

「그러면 너의젧어머니더러 무러보렴」

「그리 닉무러보마」

하며 리약이흐듯동안에 밭서두아히는 투구압해바회로 다라났더라 정남은 그투
 구바회에 올라가고심은생각이 간절하여

「이이 오날은 투구바회가 물맞그로썩나와구나 거러셔도드러가겟다 우리드
 러가보즈 나는발서브러 가보고심으되 접티는비가와서 못가보았지 엇그제

는 물이 잔뜩 들어서 못보았지. 오날은 물이 그렇게 만치안이흐니 우리드러가서 구경하즈 응 옥남아

그러나 옥남은 정남의 말을 말니며

「아이고 지금도 못간다 여기서 보기는 같것갓히도 저바회근처에 가면 물이 게운 한길이나 되게 김단다 그리고 지금부터 점점 물이 미러드러오닛가 드러갓다가 잘못하면 다시나오지 못한다 봄이나 여름갓트면 물이 한번써면 오리있다 가 다시 물이 밀지만은 요시는 물이 써다가도 급서에 도로 미러드러온단다 한 시간만 전에 왔드면 가서 구경하코와도 될것을 지금은 아쥬느졌다 공연이 드러갈성각은 하지도 말아」

「그럼 리일이 가볼사 리일은 언제쯤 가면 조갓니」

「열두시쯤히서 드러가면 관게치안타 리일은 공일이니 나가 나는 학교에도 안이 갈터이니 나오거던갓치가즈 리일은 그바위에 올라가서 보더리도 곳도로 나와야지 한참지체하면 밀물꽃드러오닛가 큰일난다」

정남은 열심으로

「응 그러 그러면 리일우리가서 구경하자」

예 이심 오회

그잇흔날 정남은 정오전부터 다만호을노려 관문을나서 항상하코즈하느 투구

누 옥 생

바회잇는 곳을 향하엿더라 정남은 지금사지라도 호을노문밭계를 내보는지안이흐더니 요스이는 점점길도익어지고 작란천구도 만이잇슴으로 이날은정남이흐느 해변에나가는것을 그리단속지안이흐야 정옥조이하여 러스름이모다 무심이잇는중에 정남은호을노문을나서 해변으로나아갓더라

정남은 어제옥남에게로부터 오날정오씩씩에는 조슈가짜져서 거러서라도가히 투구바회까지 득달하리라하느 말을 들엇는코로 오날은괴회를일치안이흐고 항상유의하던투구바위를 한번볼나가서 보리라하엿더라

급한마음의 정남은 달음질하야 그투구바회잇는 해변에 이르러그편을바라보니 맛참요슈가다가가고 솜심여간등안되는곳에 옷독하게서서 잇는전일보다 더욱 높고 옷독하야 발에 물음을치안이흐야도 녀々히투구바회까지 일으갓더라 이날은 허상에바람이심하야 언덕치는물결소리는 간々이대포소리를 멀이서듯는것갓흔디 물서는뼜를지어서 날나다니며 우는소리는 스름의마음이 스사로 처창하다 그러나 정남은 항상마음에 원하던바이라 그림으로이와갓흔 허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안이흐다 이곳은 인가를가려하면 고지하나를 넘어가야스오가되는 촌락이잇스며 이날은희풍이심하코 해변에서노는아희들도 보이지안이흐다 정남은희중에 악마(惡魔)가잇서 어린목숨을앗고즈 기다리고잇는것은아지못하코 믿음에홀니야 약속하엿던옥남이오기를 기다리지못하야 다만호을

노발스길을투구바회위로 향하였더라

전일은 물에잠기여 보이지안이흐던바회라 바회들이 모다낫타났으며 투구바회 위까지일으기에 적은바위들을 드디고도 능히득달호겟스며 물에잠긴곳이있다 홀지라도 발만색이면 건너갈곳이라 정남은조금도힘드리지안이호고 투구바회 우에득달호엿는디 그석물성이나가 허변으로브터 바람을쫓추 투구바위를 썬치고 사방으로허여져 적은물결이되는데 그소리되성벽력갓치 정남의귀를음 습호얏스나 어리고철모르는 정남의귀에는 아모의미업고 심상호게들니엿더라 정남은 바위에놓히올나서서

옥

「이세상에 장슈는나하노로다」

창가를불으며 전장에나아가 적진이나 점령(占領)호드시 상쾌호마음이비길 디업다 습호다 쳐야회의 지급서서잇는곳은 비유컨디 일키외로운 성곽(城郭) 으로 적군의중위(重圍)를 당호여 토석의위티함을 면키어려운것갓호야 그 바위아리에 물여드러오는과도는 승승장구호는군병의 물스결이오 바위에부디 처고 연기갓치 일어나는검품은 대포의연기와갓도다 그러나 저호히는 완연히 한성의주인과갓치 상쾌함을씨다르며 그몸은만대병을 거느리고 지휘명령을 식이노사령장관(司令長官)이나된다서 두번세번

「이세상의 영웅은 나하노로다」

호는창가를부르며 투구바위우에서 용밍스럽게뛰노는다

그바회우에는여러가지로 처음보는것이 만이잇스니 바회들을고여잇는곳에는 여러가지물스고기와 허초가이곳저곳에 잇서서 어린아희에눈에는 처음볼뿐이 안이라 신기호고이상호여 거의정신을일는데 일으렷더라

대 이십륙회

쌍

정남은 투구바회우에서 이리저리로다니며 정신을일코 구경을호는데 그동안 이발서 이십여분이 되었는지라 이때에 정남은눈을들어 스면을도라보니 습시 동안에 정남의지히는성곽은 발서천만군병에게 어여싸인비되여 대장을스로잡 지못호면 말지안이홍용명으로 승승장구호야 드러오는데 정남은 아즉도두려 운줄을 전혀씨닷지못호고 오히려즈미스려이 당기인다 더와갓치천군만마의 물스결은 더욱스스성을향호야 짓쳐드러오며 스방으로이러나난탄환의 연기는 말아리에서 일어는다 그러나 더아히는 어린마음으로 깃거이뛰놀며 다시목소리를크게호며

「이성에대장은 나하노로다」

호며 창가를부른다

이때에 투구바회를향호야 허변으로거러오는 한소년이잇스니 투구바회에서 어린아희가 뛰노는모양을보더니 그소년은손에드러던 나무가지를씨에너여더